

2016. 5. 4. 7/1
7-224E

碩士學位請求論文

텍스트 이론을 통한
讀解力 伸張에 관한 研究
- 설명문·논설문의 단락 분석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光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張 勳

1996年 8月

텍스트 이론을 통한 讀解力 伸張에 關한 研究

- 설명문·논설문의 단락 분석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光 雄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6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張 勳

張勳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6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텍스트 理論을 통한 讀解力 伸張에 關한 研究

張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光雄

국어 사용 능력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독해와 쓰기 능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독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디구나 학생들 대다수는 단락 의식이 희박하다. 이는 쓰기에서나 독해에서나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사과의 단위로서의 단락을 이해하고, 단락을 제대로 분석하여 독해할 때,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해와 관련지어 단락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문장의 구성과 접속 관계, 요약 규칙, 스키마 이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이 논문은 이런 이론들을 독해 교육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효율적인 독해 지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남제주군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 33명이다.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50시간의 독해 연습을 시켰다. 글의 분석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1) 단락 이론, 문맥 접속과 문장의 구성 이론, 요약 규칙의 습득은 독해력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
- (2) 텍스트 분석 방법의 습득과 연습은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 (3)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형성되지 않은 경우보다 글을 더 잘 이해한다.
- (4) 다양한 형태의 스키마 형성을 위한 읽을 거리의 제공은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 (5) 요약 규칙의 습득으로 상위 수준의 규칙을 적용하게 되어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위의 결과는 독해 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락 이론과 요약 규칙을 습득시켜야 한다. 둘째,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을 시켜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스키마 형성을 위해 읽을 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目 次

I. 序 論	1
II. 텍스트 理論의 考察	6
1. 단락 이론	6
2. 문맥의 접속과 문장의 구성	8
3. 요약 규칙	10
4. 스키마 이론	11
III. 텍스트 理論의 適用	15
1. 문장 분석의 실제	15
2. 단락 분석의 실제	26
3. 설명문과 논설문의 텍스트 분석	33
IV. 讀解 指導와 檢證	41
1. 가설과 연구의 제한점	41
2. 지도의 실제	42
3. 결과와 가설 검증	57
V. 結 論	64
參 考 文 獻	66
Abstract	68

表 目 次

표 1. 연구 대상과 비교 대상의 사전 조사	57
표 2. 진단 평가 결과	58
표 3. 종합 평가 결과	60
표 4. 진단 평가와 종합 평가의 증감 비교	6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序 論

국어과의 기본 성격을 말할 때, 국어과를 흔히 '도구 교과'라고 한다.¹⁾ 국어과가 도구 교과인 것은 다른 교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教師는 어떤 敎科이든지 國語로 가르치고 있으며, 學生은 누구나 어느 科目 할 것 없이 國語로 표기된 敎科書를 읽으면서, 國語를 듣고서 배우게 된다. 또 어느 科目의 內容이든 간에 必要한 것의 記憶과 記錄은 國語로 하고 있다. 이처럼 國語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르치고 배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意思傳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²⁾는 측면에서 국어과를 도구 교과로 파악한다.

이 때, '도구로서의 국어'가 무엇인가? 이는 기호로서의 언어 체계가 다른 교과의 학습 내용을 표기하고 전달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으로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일면 타당한 점도 없지 않지만 국어과의 도구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과가 도구 교과라는 것은 기호로서의 언어 체계가 다른 교과의 학습 내용을 표기하고 전달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기호로서의 언어 체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국어를 통한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교과의 학습에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이다.³⁾ 사실상 기호 체계로서의 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아니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거의 완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과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어 사용의 기능을 기르는 데 국어과 교육의 역점이 두어져야 함은 타당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국어과의 성격을 언어적 기호 체계가 갖는 도구적 측면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은 국어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곧 국어과에서 무엇을 가르칠

1) 韓哲憲(1992), 읽기 理論, 「蘭齋 李應百博士 古稀 紀念 論文集」, 同刊行委員會, 한샘 出版社, pp. 265~267.

2) 鄭東華·李賢積·崔賢燮(1984), 國語科教育論, 鮮一文化社, p.17.

3) 李成永(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p.79~81.

것인가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다. 국어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신참 교사로서 '모르는 게 병'인 교사이다. 이른 시기에 기호 체계로서의 국어를 습득한 이후에는 국어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도구적 측면 이외의 다른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학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온 문학 교육 영역, 이미 획득된 언어의 규칙을 명시적으로 가르쳐 온 문법 지도 영역을 지금까지 국어교육의 중심 되는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중심 내용으로 파악한 교사는 국어 시간에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고민한다. 이들은 대부분이 경력이 많은(잘 가르친다는) 교사, '아는 게 병'인 교사이다. 전자는 국어교육을 문자 지도로 보는 편협한 국어 교육관에서 비롯되고, 후자는 국어교육을 언어학(국어학)의 내용과 문학(국문학)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는 것으로 보는 광범위한 국어 교육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시중의 참고서와 입학 시험이 전자에서 후자로 변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⁴⁾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언어와 문학에 관련된 지식의 획득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렇다면 국어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국어교육은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사실 국어과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국어 사용의 기능 신장이라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사용의 기능 신장을 교과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의 현실은 이러한 목표에 결코 충실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과밀 학급에서 비롯된 개별적인 훈련의 不備, 국어사용의 기능 신장 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학교는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과 함께, 언어 사용의 기능 신장이라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일반의 인식 부족이 그것이다. 이것은 결국 '언어 사용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언어 사용 기능'이란 무엇인가? 이 말은 흔히 사용하면서도 '기능'

4) 盧命完(1994), 國語教育論, 한샘出版社, pp.114~116. ; 이성영(1995), pp.79~81.

5) 교육부(1993),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 해설.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 놓은 바가 없다.⁶⁾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읽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여기에서 읽기는 문자 해독(decoding)의 수준이 아닌, 필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재구성한다거나 혹은 독자 스스로의 목적에 적합한 읽기를 할 수 있는 고등 수준의 읽기를 뜻한다. 이처럼 고등 수준의 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언어 사용 기능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은 학생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讀解 指導에서는 글의 의미를 '몽땅그리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하며, 쓰기 지도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의미)을 '풀어 엮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국어교육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에 비추어 볼 때, 독해 지도는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독해의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독해 지도 중에서도 특히 단락 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독해 활동을 지도하고, 실제 지도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독해 지도 방안을 찾아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독서'라는 용어가 있다. 독서는 단순한 문자 해독(decoding)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독서란 '독자가 표기된 문자 언어를 통해 필자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정의된다.⁷⁾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한다. 하나는 문자의 판독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독해 기능이다. 문자의 판독은 '가'자와 '나'자를 구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하여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독해란 하나의 문장 이상의 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⁸⁾ 독서의 정의에서 '필자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이 때의 독서는 독해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독해 이론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글 중심 또는 자료 중심의 접근법으로 흔히 텍스트(text) 이론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독자의 사전 지식이 담당하는

6) 이성영(1995), p.81.

7) 노명완(1994), pp.89~90.

8) 노명완(1994), pp.93~94.

기능과 구실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으로 흔히 스키마(Schema) 이론⁹⁾이라 하는 것이다. 전자는 글에 대한 연구이고 후자는 독자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단락 분석에 관한 내용은 텍스트 이론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 지도에 있어서 지도 방법의 하나로 스키마 이론을 적용했다. 이는 배경 지식과 관련된다. 한편의 글을 읽고 그 글을 이해하는 데는 독자가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이해도가 다르다. 물론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 독자가 그렇지 않은 독자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며 그 이해도도 높다.¹⁰⁾ 그러므로 독해 지도에서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이용될 텍스트¹¹⁾는 설명적인 텍스트(expository text)¹²⁾에 한정한다. 여기서 설명적 텍스트라 함은 설명문, 논설문을 말하는 것인데, 설명적 텍스트는 논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적용의 중심으로 삼았다.

한편 이 논문은 문어 텍스트(written text)를 중심으로 학생에게 적용하였다. 그것은 구어 텍스트(oral text)보다 문어 텍스트가 교육적 적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어 교육에서 '말하기/듣기' 영역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학교 교육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읽기'와 '쓰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교과서의 것들은 배제함을 원칙으로 했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텍스트들은 자습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정확한

9) 노명완(1994), pp. 85~330.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10)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글을 읽고 난 후 독해의 검증에서 보다 많은 양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즉 행간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Robert de Beaugrande & Wolfgang Dressler(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Longman. 金泰玉·李玄浩 譯(1990), 談話·텍스트 言語學 入門, 養英閣.에서 텍스트란 일곱 가지의 텍스트성, 즉 結束構造(cohesion), 結束性(coherence), 意圖性(intentionality), 容認性(acceptability), 情報性(informativity), 狀況性(situationality), 相互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2)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7.에서 재인용. '텍스트 유형에 대한 논의도 매우 다양하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텍스트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는 Longacer 것이 유명하다. 그는 시간성의 개념과 행위자의 측면에서 담화의 유형을 narrative(+시간성, +행위자), procedural(+시간성, -행위자), behavioral(-시간성, +행위자), expository(-시간성, -행위자)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실험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 이외의 텍스트, 특히 중학생용 읽기 잡지¹³⁾에 실린 텍스트를 적용 텍스트로 이용했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텍스트 이론, 특히 단락 분석과 관련된 이론과 그 밖의 독해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고찰한 이론들을 텍스트 분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루었던 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실제로 독해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검증한다.



13) 독서 평설(1994, 1995), 통권 1~24호, 지학사. ; 읽으며 생각하며(1994), 통권 1~12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독서친구(1994), 통권 1~6호, 서울교육. ; 열린 생각 좋은 글(1994), 통권 1~6호, KBS.

이외에도 일반 문장론서의 예문들과 신문 기사 등도 이용하였다.

II. 텍스트 理論의 考察

1. 단락 이론

단락¹⁴⁾은 문장¹⁵⁾들의 집합으로 전체 텍스트를 이루는 하나의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단락(paragraph)이란 '주제의 일부 하위 개념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문장들로 엮어진 조직체로서 그 형식이 명확히 구획된 글 속의 글'¹⁶⁾이다.

일반적으로 단락의 구조는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소주제문을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들이 떠받들어 단락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주제문이란 소주제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단락은 항상 소주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단락의 구조에는 소주제문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물론 소주제문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도 있으나 그 기저에는 소주제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뒷받침 문장이란 소주제문을 떠받들어 펼치는 것으로서 소주제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이다.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를 충분히 전개한 것이어야 한다.

14) 정달영(1992), 국어 작문 교육에서의 단락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분석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pp.339~340. "paragraph의 역어로는 '단락', '문단', '대문', '대목' 등 4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다. 이들 용어 중 '단락'과 '문단'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다. '단락'은 일반 문장론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문단'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 및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두 용어는 그 분포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둘 모두 사용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다. 다만 사전적 의미나 학습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단락'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paragraph를 뜻하는 용어로는 '단락'을 쓴다.

15) sentence에 대한 역어로는 '문장(文章)'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두루 쓰이고 있으며, 각급 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김열규(1981:80)에서는 '문(文)'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 '문장'을 '전체의 글'이란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가 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빚기도 한다. 따라서 sentence를 가리키는 용어는 '문장'으로 통일함이 바람직하다.

16) 정달영(1992), p. 7.

한편, 단락의 구조를 '도입부, 논의 및 결론'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¹⁷⁾도 있다. 서론에서 중심 문장(the topic sentence)을 제시함으로써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언급한다. 논의에서는 화제(the topic)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론에서는 중간 논의(discussion)를 완성하고 처음에 진술한 주요점을 언급한다. 가끔 결론에서는 문단의 중심 생각을 요약 진술한다.

단락의 구조와 관련하여 언급할 사항은 그 구조 유형(pattern)에 관한 것이다. 국어의 문장론에서 두괄식, 양괄식, 미괄식, 중괄식의 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글 전체의 구조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단락 구조의 유형으로 다루는 일이 많다.

단락은 그 기능에 따라 대체로 '일반 단락'과 '특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⁸⁾ 일반 단락은 '전개 단락' 또는 '논의 단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글의 내용을 전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수 단락은 일반 단락과는 달리 글의 구성상 필요한 구실, 즉 글의 시작, 끝맺음 등의 목적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도입 단락(opening paragraph), 마무리 단락(concluding paragraph), 전환 단락(transitional paragraph) 등이 있다. 이밖에 보조 단락, 강조 단락, 부연 단락, 발전 단락, 보충 단락, 대화 단락, 회화 단락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단락을 가르기도 하고, 또 전개법상의 특징에 따라 묘사 단락, 설명 단락, 논증 단락, 인용 단락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¹⁹⁾ 이러한 구분은 단락의 성질이나 의미 기능면에서 구분한 것들이다.

단락이 하나의 사고의 단위(unit of thought)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완결성이 있어야 하며,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글 전체 속의 한 부분으로 다른 단락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락을 구성하는 데 統一性(unity), 連結性(coherence), 強調性(emphasis)²⁰⁾은 단락 구성의 기본적인 골격이

17) Kathleen E. Sullivan(1980), *Paragraph Pract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최현섭 譯(1987), 文段訓練. 鮮·文化社, p.15.

18) 정달영(1992), p.22. ; 서정수(1985), 作文의 이론과 방법, 새문사, pp.191~201. ; 金光雄(1989), 文章構造研究, 전예원, pp.89~94. ; 서정수(1994),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개정판), 사당다리, pp.205~217.

19) 김광웅(1989), pp.89~94. ; 김봉군(1993), pp.448~450.

20) 서정수(1985)에서는 이 세 가지를 수사학의 3대 원리라고 하고 있다. 이는 주로 글을 쓸 때의 원리로 많이 이용되지만, 독해에서도 이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잘된 글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잘 갖추어진 글을 가리킨다.

다.21) 여기에 학자에 따라서 完結性(completeness)²²⁾을 덧붙이기도 한다.

단락의 전개 방식은 설명(exposition), 논술(argument), 기술(description), 서사(narration) 등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²³⁾ 곧 각 단락의 전개에서는 이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방식이 어울려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글은 단락의 전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전개법은 단락을 이루는 과정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 문맥의 접속과 문장의 구성

1) 문맥의 접속

접속은 단순하게 몇 가지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접속 관계를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관건이 된다. 이 접속 관계의 유형은 대체로 여덟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⁴⁾ : ① 원인과 결과, 이유와 귀결, 설명(상세화, 부연), 시간적·공간적 서술(사건의 순차적 서술) 등의 순접 관계. ② 문장이나 단락의 내용이 대립되어 접속되는 역접 관계. ③ 전후문의 반복, 대비에 의한 대등·병렬 관계. ④ 앞글의 내용을 강조, 보충하거나 성질이 다른 것을 덧붙이는 보충·첨가 관계. ⑤ 앞글과 다른 새

21) 김광웅(1989), pp.11~13. ; 정달영(1992), p.23. “이는 전통적으로 수사법의 3대 원리라고 지칭되어 오던 것으로서 모든 글을 짓는 데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단락의 경우에도 이 3가지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글을 전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각 단락을 전개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22) 김광웅(1989), p.13.

완결성(completeness) : 하나의 단락은 주요 명제와 종속 명제로써 완성된다. 이것을 완결성이라 한다. 주요 명제란 중심 사상의 제시 또는 내포된 文(文章, sentence)의 집합으로써 주제문(topic sentence)이 이를 대표하기도 한다. 종속 명제는 중심 사상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예증, 인용, 이유 해명, 상세화, 경험 소개 등에 의한 강조, 부연, 보완에 해당한다. 전자가 대체로 일반적 진술이라면 후자는 특수 진술로서 구체적이다.

23) Cleanth Brooks & Robert P. Warren(1972), *Modern Rhetoric*(4th E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pp.40~41. ‘The four kinds of discourse are exposition, argument, description, and narration.……’

24) 김광웅(1989), pp.14~19.

로운 생각이나 사실을 서술하여 화제를 일전시키는 화제 전환 관계, ⑥ 뒷문장이나 단락의 내용이 앞글을 환언, 요약, 상술, 반복할 때 나타나는 재서 관계. ⑦ 앞문장이나 뒷문장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나타낸 선택 관계. ⑧ 앞 문장이나 단락에 대한 실례, 비유를 나타내는 비유 예시 관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에서 분류한 접속부사를 기계적으로 순접, 역접 등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사가 문장 상호간 또는 단락 상호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문맥 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물론 위에서 분류한 기능이 일차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떤 접속부사는 이차적, 삼차적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2) 문장의 구성

단락이 문장으로 구성된 의미있는 결합체라면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구명하고 문장의 구성형을 밝힐 때 단락의 분석은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가정 위에서 문장의 기본형식과 문장의 연결구조를 고찰함은 중요한 일이다.

문장의 기본 형식²⁵⁾은 '주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세 가지이다.²⁶⁾ 물론 학자에 따라 기본 형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편의 글을 분석하는 방법의 기준은 어떤 학설을 응용하더라도 글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학교 문법에서는 문장의 구조상 분류를 '홀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문장 속의 문장(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의 네 가지로 나눈다.²⁷⁾ 이 같은 문장을 분석할 때에 각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연결어 등은 중요한 구실을 한다. 연결어미의 구실과 대응은 문장의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개 긴 문장이 연속될 때 연결 어미의 대응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미의 용법과 대응 구조를 분명히 할 때 그 문맥은 명료해지고 문장의 의미는 명백해질 것이다.

연결어미는 크게 대등법과 종속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등법에는 '나

25) 문장의 기본 형식은 최소한의 필수적 요소가 갖추어진 단위를 말한다. 필수적 요소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장에서 생략이 불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26) 김광웅(1989), p.20.

27) 남기심·고영근(1987),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pp.371~421.

열, 선택, 반복'의 연결어미가 있고, 종속법에는 '구속, 방임, 설명, 비교, 연발, 중단, 첨가, 익십, 의도, 목적, 도급'의 연결어미가 있다.

이처럼 연결어미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문장 분석에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첫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주절과 부사절로 연결되어 그 문장의 중심 내용은 대개 주절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주절의 문장은 문장의 기본 형식에 귀착된다. 둘째, 목적형, 의도형, 반복형은 문장 속의 문장, 즉 안긴 문장에만 쓰인다. 셋째, 반드시 종속절(즉 부사절)에만 쓰이는 연결어미가 있는데 비교형이 그것이다.

3. 요약 규칙

텍스트를 요약하는 요약 규칙²⁸⁾은 텍스트 분석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대표적인 것들로 반딕과 킨취(van Dijk & Kintsch), 브라운과 데이(Brown & Day), 한과 골드만(Hahn & Goldman) 등의 규칙을 들 수 있다.

1) 반딕과 킨취의 요약 규칙

이들은 글 전체적인 의미는 의미적 거시 구조에 의해서 표상된다고 본다. 글의 미시 구조들을 거시 구조와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의미적 도식화(semantic mapping)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거시 규칙이다. 이 거시 규칙은 削除(Deletion), 一般化(Generalization), 選擇(Selection), 構成(Construction)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곧 요약 규칙이다.

2) 브라운과 데이의 요약 규칙

브라운과 데이의 요약 규칙은 반딕과 킨취의 것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들이 실제 실험에 적용한 요약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사소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다. (㉡) 중요한 내용이라도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한다. (㉢) 항목의 목록들은

28) 서혁(1990), 段落·文章의 重要度 把握과 段落의 主題文 作成能力이 要約에 미치는 效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p.34~39. ; 이삼형(1994), pp.88~96.

가능하면 상위어로 대치한다. (㉑) 행동의 하위 요소의 목록 대신 포괄적 행동으로 대치한다. (㉒) 주제문의 선택 : 글 속에 주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이를 선택한다. (㉓) 마땅한 주제문이 글 속에 없을 때는 스스로 창출한다(Topic sentence invention). 이는 크게 '削除, 上位語로 代置, 主題文 作成, 주제(문) 창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주제문 작성과 관련되는 (㉒), (㉓)은 특히 요약에서 중요한 것들이다.

3) 한과 골드만의 요약 규칙

이들은 브라운과 데이의 요약 규칙을 바탕으로, 요약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요약 처리에 있어서 더 상위의 요약 규칙이 요구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요약의 길이를 달리함에 따라 요약 전략이 변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제시된 글을 차례대로 ㉑단락당 두세 문장, ㉒단락당 한 문장, ㉓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하고 거기에 적용된 전략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4학년과 6학년 모두가 복사·삭제 규칙의 적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상위 학년일수록 단순 복사·삭제 규칙에 의존하기보다는 주제문 작성 및 단락간 주제문 통합 규칙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상위 규칙을 잘 활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글의 경우 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스키마 이론

스키마²⁹⁾는 독자가 글을 읽을 때에 동원하는 독자가 갖고 있는 知識構造의 학술적인 이름이다. '스키마는 經驗의 總體로서 對象, 事件, 行動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다.³⁰⁾ 또한 스키마는 지식을 구성하는 下位要素들(variables or slots)

29) 노명완(1994), pp.264~268. "우리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경험들이 저장되어 있다. 기억된 것은 모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식에는 크게는 어떤 특정 경험과 연관되어 기억되고 있는 逸話的 지식(episodic knowledge)도 있고,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추상화되고 일반화되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概念的 지식(semantic knowledge)도 있다. 스키마는 이 두 종류의 지식 모두를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30) 노명완(1994), p.149.

을 포함함으로써 추상화된 구조를 형성한다.

스키마 이론에서는 의사전달은 근본적으로 메시지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스키마 이론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전제는 독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독해 과정을 설명하는 해석의 틀로 이용되고 있다.

스키마 이론이 설명하는 독해는 다음과 같다.³¹⁾ 첫째, 스키마 이론가들은 독해란 근본적으로 글에 담긴 메시지와 독자가 갖고 있는 적절한 스키마(배경 지식)를 연결짓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독자들은 글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둘째, 스키마 이론에서 보는 독해는 언어적 지식의 단순 활용 이상의 認知的 과정이다. 글을 읽고 난 후 독자가 회상하는 회상문(recall) 속에는 읽은 글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그러나 그 글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 세상 지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이는 독해과정 중에 스키마가 작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스키마는 글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또는 읽고 난 후 글 내용을 기억할 때에 글에 진술되지 않은 내용(slots)을 메워주고, 내용을 추론 또는 확장하며, 필요없는 부분을 생략하고, 적절치 못한 내용을 변형하여 글 내용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마련하여 준다.

앤더슨(Anderson)은 독서 과정에서 스키마의 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³²⁾

- ① 스키마는 독서 자료에 담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상적인 지식 구조를 형성하여 준다 : 이 지식 구조가 독서 자료의 정보와 적절히 합치될 때에 독서 과정은 의식적인 지적 노력 없이도 이루어진다.
- ② 스키마는 많은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 스키마는 많은 정보 중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를 선별하여 중요한 정보에 더 많은 주의 집중을 일으킨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스키마와 관련되는 정보)를 더 강조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예 : 집에 대한 글을 읽을 때,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입장과 도둑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글 속에 포함된 정보를 선택하여 기억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천장은 새지 않는가, 지하실은 습기가 차지

31) 노명완(1994), pp.149~151.

32) 노명완(1994), pp.296~297.에서 재인용

않는가 등을 기억하지만, 도둑은 주위에 다른 집이 없다든지, 금고 안에는 현금이 가득한가 등을 기억한다.).

③ 스키마는 추론 과정을 통해 명시되지 않은 정보도 찾아 준다 : 어떤 글도 모든 내용을 다 명시적으로 진술하지는 않는다. 스키마는 글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내용을 추론하여 行間을 읽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준다(자동차만 보고도 엔진의 실재를 알게 되고, 이야기의 앞부분으로 뒷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④ 스키마는 정보 탐색에서 탐색의 순서와 절차를 제공하여 준다 : 식당의 손님들이 식사 후에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예측은 식당 스키마가 식당에서의 행동에 대한 어떤 순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⑤ 스키마는 읽은 내용을 재편집하고 요약하는 구실을 한다 : 읽었다고 해서, 그리고 이해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모두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스키마는 글의 제시 순서나 내용 구조를 스키마의 구조에 통합시켜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준다(읽은 글을 회상할 때 회상되는 내용과 회상 순서가 주어진 글의 내용 및 내용의 제시 순서와 일치하지 않음은 스키마의 재편집 및 요약 기능 때문이다.).

⑥ 스키마는 수많은 여러 정보들을 어떤 일관성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준다.

스키마 이론이 독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읽기 자료 또는 교사용 지침서에는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존 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글의 내용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 스키마와 통합시키는 데 미숙하므로, 읽기의 준비 과정으로서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스키마 활용에 환기시키는 안내가 필요하다.

둘째, 만일 학생들이 글 내용에 적절한 스키마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교사는 글의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전통적인 수업에서 수업 시간의 첫부분을 도입 단계로 할애하여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배경 경험을 동원하여 글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

도록 준비 상황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글 이해에 필요한 스키마를 동원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활동인 것이다. 스키마 이론은 이같은 도입 활동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이를 강화하도록 시사한다.

셋째, 스키마 이론은 수업 과정에서 추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시사한다. 글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앞으로의 사건 전개 예측 등과 같은 추론 활동은 제시된 글 내용을 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해한 내용의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 한 예로 “대머리 신사가 신문을 읽고 있다”라는 문장은 그 문장 자체만을 기억하려고 할 때보다 그 문장을 “대머리 신사가 (모자 광고가 있는) 신문을 읽고 있다”라고 변형하여 읽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는 관련되는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면서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하여 읽을 때에 기억이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스키마 이론은 자료의 구성이나 실제의 지도에서 독서에 선행하여 글의 전체 내용을 일관성 있게 포섭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개념이나 구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떤 개념이, 그리고 어떤 유형이 글 전체를 포섭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스키마인가 하는 문제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스키마 이론은 독해의 부진을 (독서) 능력의 부족으로 생각해 왔던 종래의 평가관이 올바르지 못함을 지적해 준다. 독자의 기존 스키마가 독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적 방법을 통한 스키마의 동원이 독해(이해와 기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능력 부족”으로만 탓해 왔던 독해 부진아들에 대해 희망적이고 교육적인 대책을 제공하여 준다.

III. 텍스트 理論의 適用

1. 문장 분석의 실제

독해의 과정을 살펴 보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단락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³³⁾ 그러므로 단락 이론을 적용하기 전에 간략하게 문장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1) 문장 구성

단락이 문장으로 구성된 의미 있는 결합체라면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구명하고 문장의 구성형을 밝힐 때 단락의 분석은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가정 위에 문장의 기본 형식과 문장의 연결 구조를 고찰함은 중요한 일이다.

문장의 기본 형식은 '주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세 가지이다. 모든 문장은 이 세 가지 기본 형식으로 귀결된다.³⁴⁾ 그러므로 어떤 글을 대하더라도,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 보어, 목적어를 먼저 찾아 내어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홀문장의 경우이다.

접문장의 경우는 연결 어미³⁵⁾를 고려해야 한다.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연결 어미 앞뒤의 구절 모두에 중심 의미가 있다.³⁶⁾

(1) 철수는 서울로 가고, 영희는 부산으로 갔다.

(1)에서 연결 어미는 '-고'인데, 대상을 비교(열거, 대조)하기에 알맞은 문장

33) 이는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 외에 '위에서 아래로(top-down)'의 방식이 있다.

34) 문장의 복잡성은 수식어의 나열, 연결어미의 연속적 배열에 의함이지 문장의 기본형 자체의 복잡성은 아니다. 그러므로 문장의 기본 형식 설정은 문장의 분석에 중추적인 구실을 할 것이다.

35) 김광웅(1989), p.22. 연결 어미의 분류

구조로 되어 있어 강조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경우 중심 의미는 앞 구절과 뒤의 구절 모두에 있다.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결 어미 뒤의 구절에 중심 의미가 있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2) 비가 와서 낚시를 할 수 없었다.

(2)에서 연결 어미는 '-서'인데, 문장의 앞 뒤 관계를 분명히 하여 논리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심 내용은 '낚시를 할 수 없다'가 된다. 다음은 문장 속의 문장의 경우를 보자.

(3) 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對 等 法	羅列	-고, -면서, -며, -아/어, -요
	選擇	-든지, -거나, -(으)나, -(으, 느, 더)ㄴ지
	反復	- 락, -거니
從	拘束	-(으)면, -(으)르것 같으면, -(으)르진대, -거든, -(더)ㄴ들, -(으)니, -(으)ㄴ즉, -아/어, -아/어서, -(으)매, -(으)므로, -아/어야만, -거늘, -기에/로, -아/어야, -(으)니까, -나니, -(으)ㄴ지라, -거니, -건대, -관대
	放任	-더라도, -(으)르지라도, -(으)ㄴ들, -(으)르망정, -(으)르지언정, -지마는, -아/어도, -(으)나, -(으)마나, -(으)련마는, -건마는, -거니와, -(으)려니와, -(으)나마
屬	說明	-는데, -(으, 느, 더)ㄴ바, -(으)되, -(으)르새, -(으, 더, 노, 나)니
	比較	-거든, -거은, -거들랑
法	連發	-자, -자마자
	中斷	-다가, -다
	添加	-(으)로, -(으)르뿐더러
	益其	-(으)르수록
	意圖	-(으)려, -고자/고저, -자
	目的	-(으)러
	到及	-도록

36) 이삼형(1995), pp.48~62.에서 구조 분석의 단위를 '홀문장, 대등절'로 잡고 있다. 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그 대등절을 따로 분리시켜도 의미에 변화가 없으며, 각기 하나의 홀문장으로 독립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결국 분석 단위는 홀문장이 되는 것이다.

(3)의 경우는 말하고자 하는 두 단위의 생각이 있다. 즉 '네가 깜짝 놀란다'와 '그러한 일이 생겼다'이다. 이 두 단위의 생각을 일원화시켜 간결하고 집중력 있는 표현이 된다. 여기서도 중심 내용은 안은 문장이다. 즉 '그러한 일이 생겼다'에 중심이 있다.

문장의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홀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문장 속의 문장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문장의 형태일지라도 '주절'에 그 중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중심 의미를 찾고자 할 때는 주절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주어와 서술어의 대응이다.

(㉑) 주어와 서술어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읽어 가는 도중에 무엇이 주어인지를 망각하게 된다. 이때에는 문장을 몇 개로 잘라 양자의 위치를 접근시켜서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㉒) 문장 도중에 주어가 바뀌는 경우에는 전체 주어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면서 문맥을 이해해야 한다.

(㉓) 하나의 주어가 둘 이상의 서술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구두점에 유의하여 필자가 쓰려고 하던 의도(main subject)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㉔) 주된 주어와 부주어가 있을 때 주된 주어와 주된 술어를 대응시켜 문맥을 이해해야 한다.

(㉕)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많은 삽입 구절이 나열될 때에는 삽입된 구절을 분리시켜 주술 관계를 올바르게 연결시켜야 한다.

(㉖) 주어나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 그 문장 하나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 전체의 관점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식어(절)와 피수식어(절)의 대응이다.

(㉗) 관형어의 위치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면서 이에 따른 의미 변화를 파악한다.

(㉘) 본래 부사는 바로 다음의 말을 수식하는 일이 많지만, 전성부사는 하나 건너 뛰어 다음의 용언을 수식하는 일이 많다.³⁷⁾

37) 이를 유형화해 보면 ㉑순수 부사가 수식하는 경우, ㉒전성부사 또는 용언의 부사

(ㄷ) 관형어와 부사어가 겹쳐 있는 경우 앞에 있는 부사형은 다음의 관형사형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³⁸⁾

2) 접속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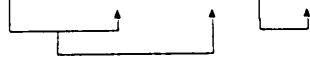
접속은 단순하게 몇 가지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접속 관계를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관건이 된다. 접속 관계는 문장과 문장 뿐만이 아니라, 단락과 단락 사이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 접속 관계의 유형은 대체로 여덟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³⁹⁾ 접속의 유형에 따라 살펴 보자.

첫째, 순접의 경우를 보자. 원인과 결과, 이유와 귀결, 설명(상세화, 부연), 시간적·공간적 서술(사건의 순차적 서술) 등이 이 순접 관계에 해당한다. 접속부사로는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니,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매,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고로’ 등이 있다. 원인과 결과, 이유와 귀결의 순접은 결과, 귀결에 그 중심 내용이 있다. 설명(상세화, 부연)의 경우는 설명, 상세화, 부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형이 수식하는 경우, 그리고 ㉠부사성 연결어미를 가진 용언, 부사성 불완전 명사, 부사격 조사가 수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부사어 + 부사어 + 용언 (꼭 빨리 뛰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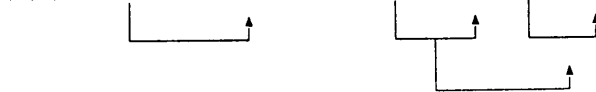


㉡ 부사어 + 부사어 + 용언 (빨리 꼭 가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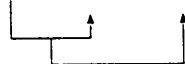


㉢ 부사어 + 부사어 + 용언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었다. 제 구실할 만큼 많이 컸다.)



38) 우리 연대는 가장 험악한 시대이다.



39) 김광웅(1989), pp.14~19.

- (4) a. 칠혹 같은 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
 b. 가스통이 새었다. 그래서 온 실내가 불바다로 되었다. (원인)
 c.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즉) 오랜 설움이 복받힌 것이다. (설명)
 d. 살인범도 물에 빠진 아이는 건져 준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이유)

(4.a)는 이유와 귀결의 관계이다. 이 경우 귀결에 해당하는 ‘우리는 전진을 중단하다’에 그 중심 내용이 있다. (4.b)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이 경우 결과에 해당하는 ‘실내가 불바다가 되었다’에 중심 내용이 있다. (4.c)는 설명의 관계이다. 이는 앞문장에 대해 뒷문장이 설명하는 경우이므로, 중심은 앞문장에 있다.

둘째, 역접 관계를 보자. 이 관계는 문장이나 단락의 내용이 대립되어 접속되는 경우이다. 즉 뒤의 글이 앞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의 의미 내용을 갖고 접속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중심 내용은 뒷부분에 있다. 접속부사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러되, 하지마는, 하나’ 등이 있다.

- (5) a. 수해가 컸다. 그러나 농작물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b. 바람은 없었다. 그렇지만 날씨는 조금도 풀린 것 같지 않다.
 c. 그 친구는 마음이 좁다. 그렇더라도 그를 버리지 말고 바르게 이끌어야겠다.

앞에서 들었던 예를 살펴 보면 모두 뒷문장에 중심 내용이 있다. 즉 (5.a)는 ‘농작물에는 큰 피해가 없다’, (5.b)는 ‘날씨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 (5.c)는 ‘그를 이끌어야겠다’에 그 중심 내용이 있다.

셋째, 대등·병렬 관계를 보자. 이는 전후문의 반복, 대비에 의한 접속을 말한다. 즉, 접속하는 두 문장, 또는 단락이 동가의 관계에 해당한다. 동가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중심 내용은 양쪽 모두에 있다. 접속부사는 ‘및, 또는, 혹은, 또한, 이에 반하여, 또, 그뿐 아니라’ 등이 있다.

- (6) a. 학교 및 교회가 다 쫓기하였다.
 b. 고대 소설은 추상적인 설명, 공식적인 문장에 홀렸다. 또 과장법을 써서 독

자의 환심을 사고 주인공을 영웅화, 위인화하였다.

c. 과학은 경험을 토대로 연구한다. 과학은 사물의 원인과 법칙을 탐구한다.

넷째, 보충·첨가 관계는 앞글의 내용을 강조, 보충하거나 성질이 다른 것을 덧붙이는 접속 관계이다. 소재(또는 제재, 주제)가 다른 것을 덧붙여 내용을 더 절실히 표현하는 것으로 설상가상, 금상첨화가 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앞부분에 중심 내용이 놓인다. 접속부사는 ‘단, 더욱, 그 위에, 게다가, 뿐만 아니라, 더구나, 더군다나, 심지어, 하물며’ 등이 있다.

(7) a. 그는 합격했다. 게다가, 동생까지 합격했다.

b. 그는 만날 때마다 목례를 했다. 뿐만 아니라, 미소까지 지었다.

c.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단, 초대 대통령의 경우는 예외이다.

d. 현대 서적만으로는 옛날을 알기 어렵다. 옛날, 옛 사람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고전이다.



다섯째, 전환 관계는 앞글과 다른 새로운 생각이나 사실을 서술하여 화제를 일전시키는 접속 관계이다. 그러므로 앞과 뒤 양쪽 모두에 중심 내용이 있다. 접속부사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그렇다면’ 등이 있다.

(8) a. 그는 내일 귀국한다. 그런데 너 만나러 갈 셈이냐?

b. 그는 합격했지. 그런데 자넨 어떻게 됐나?

여섯째, 재서 관계는 뒷문장이나 단락의 내용이 앞글을 환언, 요약, 상술, 반복할 때 나타나는 관계이다. 앞 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다. 접속부사는 ‘즉, 그런 즉, 말하자면, 요컨대, 이를테면’ 등이 있다.

일곱째, 선택 관계는 앞문장이나 뒷문장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나타낸 관계이다. 그러므로 앞 뒤 양쪽 모두에 중심 내용이 있다. 접속부사는 ‘또는, 혹은’ 등이 있다.

(9) 그는 웃고 있었다. 또는 춤을 추기도 했다.

여덟째, 비유·예시 관계는 앞 문장이나 단락에 대한 실례, 비유를 나타내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비유, 실례를 뺀 나머지 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다. 접속부사는 ‘예컨대, 이를테면, 말하자면, 가령’ 등이 있다.

- (10) a. 그는 훌륭한 점이 많다. 예컨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성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b. 은회는 마음이 정결하다. 마치 갓 핀 백합과도 같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에서 분류한 접속부사를 기계적으로 순접, 역접 등으로 보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사가 문장 상호간 또는 단락 상호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문맥 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물론 위에서 분류한 기능이 일차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떤 접속부사는 이차적, 삼차적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의 경우를 보자. ‘그러므로’는 인과적 용법만이 아니라 첨가적 용법, 예시적 용법으로도 쓰인다.

- (11) a. 묘사적 형상이 어떤 사물을 그리려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정서적 형상은 어떤 사물에서 얻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묘사적 형상이 보다 객관적이라 한다면 정서적 형상을 보다 주관적이라 할밖에 없다.
 b.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은 문화의 장식자이다. 그러나 국가가 비운에 처했을 때 시인은 예언자로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산된 이탈리아인에게 단테는 유일한 이탈리아로 승모되었으며, 1차 대전시 독일 압제 하에서 벨기에인에게 시인 베르하렌은 조국의 신령으로 추앙되었다.
 c.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노력해야 한다.

글 (11.a)의 초점은 묘사적, 정서적 형상의 개념 설명에 있다. 따라서 밑줄 친 ‘그러므로’는 첨가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글 (11.b)의 초점은 시인의 사명에

있다. 따라서 밑줄 친 ‘그러므로’는 예시적 용법으로 쓰였다. 글 (11.c)에 쓰인 ‘그러므로’는 일차적인 기능으로 쓰였다. 참고로 글 (11.b)의 둘째 문장이 시작 되는 곳에 있는 ‘그러나’의 경우를 보자. 이는 셋째 문장이 없으면 대등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지만, 셋째 문장이 있기 때문에 분량비율에 의해 중심이 뒤에 있는 글이 된다. 그러므로 ‘그러나’는 역접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나’의 경우를 보자. ‘그러나’는 역접의 용법뿐만 아니라, 대등의 용법, 첨가적 용법으로도 쓰인다.

- (12) a. 아래아(·)는 첫 음절에서 <아>로 변한다. 그러나, 둘째 음절에선 대부분 <으>로 변한다.
 b. 사과를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 먹어라.
 c. 태풍이 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엔 피해가 없었다.

글 (12.a)는 아래아(·)의 용법을 설명한 글이다. 그러므로 밑줄 친 ‘그러나’는 대등의 용법으로 쓰였다. 글 (12.b)는 앞부분에 중점이 놓인 글이다. 따라서 밑줄 친 ‘그러나’는 첨가적 용법이다. 글 (12.c)의 밑줄 친 ‘그러나’는 일차적 기능의 용법인 역접의 용법이다.

정리하여 보면, 순접은 이유와 귀결, 원인과 결과의 용법에서는 결과, 귀결에 그 중심 내용이 있다. 그리고 설명(상세화, 부연), 비유·예시 관계의 경우는 설명, 상세화, 부연, 비유·예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다. 순접 이외에 앞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는 것은 보충·첨가 관계, 재서 관계, 비유·예시 관계이다. 뒷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는 것은 역접 관계이며, 나머지 대등·병렬 관계, 전환 관계, 선택 관계는 양쪽 모두에 중심 내용이 있다.

2. 단락 분석의 실제

1) 단락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단락이 모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 편의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야 하고,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락을 이루는 각 문장의 핵심 어구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이는 1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한 편의 글이 하나의 주제로 정리된다면, 단락은 그보다 작은 주제, 즉 소주제로 정리된다. 다시 말해서 단락은 하나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하나 이상의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이 소주제문은 핵심 어구를 찾고 이 핵심 어구들을 가지고 소주제문(중심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는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소주제문을 찾을 수 있다. 이 소주제문이 단락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것이다.

단락의 소주제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락의 소주제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파악이 어렵다.

(1) 소주제문이 드러난 단락

단락 안에서 소주제문이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단락의 중심 내용이 된다.⁴⁰⁾ 이런 경우 소주제문은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40) 단락의 구조와 관련하여 언급할 사항은 그 구조 유형(pattern)에 관한 것이다. 국어의 문장론에서 두괄식, 양괄식, 미괄식, 중괄식의 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글 전체의 구조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단락 구조의 유형으로 다루는 일이 많다. 사실상 이 구조 유형은 단락과 같이 짧은 글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며 다루기도 쉽다.

두괄식 단락은 소주제문을 맨 앞에 내걸어 놓고 그것을 떠받드는 뒷받침 문장들을 그 뒤에 늘어놓는 구조이다. 첫머리 부분에 단락의 핵심이 놓이고, 그 뒤에 그것을 풀이하거나 합리화하는 뒷받침 요소들이 이어지는 꼴이다.

양괄식 단락은 소주제문을 첫머리에 내걸고 그것을 뒷받침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소주제문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짜임새이다. 이 단락은 실제로 두괄식 구조와 같은 것인데, 끝에 가서 소주제문이 한 번 더 보이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단락은 두괄식의 경우처럼 전개된다.

미괄식 단락은 뒷받침 문장들이 앞에 놓이고 소주제문은 맨 끝에 제시된다. 소주제의 위치로만 보면 두괄식과 반대의 구조이다.

중괄식 단락은 소주제문이 단락의 중간에 놓여 있고 그 앞과 뒤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구조 유형이다. 앞부분에서 약간의 서술이 있는 다음에 우선 그것을 바탕으로 소주제문을 내세운다. 이 소주제문을 다시 뒷받침하여 구체화 또는 합리화하도록 하면 중괄식이 된다. 따라서 중괄식은 앞부분은 미괄식이고 소주제문의 뒷부분은 두괄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13) 사람은 사람에게서 배운다. 글을 읽는 것도 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은 인간 사회에서 얻는 것이 가장 많고 유익한 일이라고 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람에 의하여 제 구실을 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14)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기 위해 독서를 해야 한다.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듯, 정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지식을 섭취해야 한다. 정신적 성장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받아들인 간접 체험이 우리의 정신을 살찌게 한다.

(15) 여성이 훌륭해야 나라가 훌륭해진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서나 여성의 구실은 비슷하다. 여성은 아기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킨다. 만약, 이 때, 여성이 잘못된 생각이나 철학을 가진다면, 아기는 어떻게 클까? 말할 필요도 없이 뼈뿔어지게 성장할 것이다.



(13)은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단락이다. 각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보자. 둘째 문장은 첫째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첫째 문장에 대한 부연이다. 셋째 문장은 첫째 문장에 대한 예시인데,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넷째 문장은 셋째 문장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앞에서 살펴 보았던 부연, 예시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첫째 문장에 글의 중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 문장 '사람은 사람에게서 배운다'가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인 소주제문이 된다.

(14)와 (15)도 같은 방법으로 앞 뒤 문장의 관계나 각 문장의 성격을 파악하면 쉽게 소주제문을 찾을 수 있다. (14)와 (15)도 모두 단락의 맨 첫 부분에 소주제문이 위치해 있다. 즉 (13), (14), (15)의 단락들은 모두 두괄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2) 소주제문이 드러나지 않은 단락

단락 속에서 소주제문이 문장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⁴¹⁾는 핵심 어구를 찾는

41) 이러한 경우를 무괄식이라 한다. 모든 일반 단락에 소주제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단락이 형성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소주제가 핵심이 되

다. 이 때, 앞에서 제시했던 요약 규칙⁴²⁾을 이용한다. 즉 삭제, 상위어로의 대치, 주제문 작성, 주제문 창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된다. 그것이 곧 단락의 소주제문이 된다.

- (16) a. 과학 문명의 발달은 자연 자원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급속한 자연 자원의 이용은 자연 파괴를 가속화시켰으며, 그 결과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 모든 문명의 기기(利器)와 시설로부터 나오는 각종 폐기물은 지구상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원(汚染源)이 되고 있다.
- b. 인구의 급증과 그로 인한 생활 필수품 등의 수요 급증은 산업 시설의 확충을 가져왔다. 그런데 산업 시설의 확충은 결과적으로 수질 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유, 폐수, 살충제, 농약, 납 성분 등과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배설물은 수중 생물을 거쳐 결국은 인간의 체내에 축적됨으로써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 (17) 그런데 차가 대관령을 넘어 무렵, 나는 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양이 물을 가져오고 등을 두드려 주는 등 나를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복통은 누그러지지 않았고, 종점에 닿았을 때에 나는 숫제 때 굴때굴 구를 지경이었습니다. 안내양과 기사 아저씨는 택시를 불러, 나를 태우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그 때부터 고속 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6.a)에서 핵심 어구를 찾아보면, ‘과학 문명의 발달, 급속한 자연 자원의 이용, 자연 파괴, 각종 폐기물, 지구상의 생태계 위협’ 등이다. ‘삭제’와 ‘상위어로의 대치’를 이용하여 이 중에서 더욱 중요한 어구를 간추려 보면 ‘과학 문명의 발달, 생태계의 위협’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제문 작성’을 적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과학 문명의 발달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가 된다. 이

는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그것이 소주제문이라는 형식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무괄식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두괄식이나 미괄식처럼 소주제문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단락의 요지가 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소주제를 일부러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은근하고 함축적인 효과를 낸다.

42) 여기서 요약 규칙은 주로 브라운과 데이의 것을 이용하였다.

것이 바로 (16.a)의 소주제문이자 중심 문장이 된다.

마찬가지로 (16.b)에서 ‘인구의 급증, 생활 필수품, 수요 공급, 산업 시설 확충, 수질 오염,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배설물, 해’ 등을 핵심 어구로 찾아볼 수 있다. 이것들을 ‘삭제’와 ‘상위어로의 대치’, ‘주제문 작성’의 요약 규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인구의 급증과 산업 시설의 확충은 수질을 오염시킨다’가 된다. 이것이 (16.b)의 소주제문이자 중심 문장이다.

(16)은 핵심 어구를 간추림으로 하나의 소주제문을 파악해 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17)와 같은 경우는 간추린 문장을 바탕으로 다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야 한다. ‘주제문 창출’의 경우이다. 우선 핵심 어구를 파악하면, ‘차, 대판령, 복통, 안내양과 기사 아저씨, 데려다 주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를 간추리면 ‘찬 안에서 복통을 앓은 나를 안내양과 기사 아저씨가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가 된다. 여기서 ‘주제문 창출’의 요약 규칙이 적용된다. 즉, 구체적 사실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으면, ‘친절과 봉사에 대한 생각’으로, 이를 이 단락의 소주제문이라 할 수 있다.⁴³⁾

2) 단락간의 관계와 글의 구조

핵심 어구와 소주제문을 찾아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의 독해의 과정은 파악된 단락의 중심 내용을 통해 단락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글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1) 단락간의 관계 파악

한 편의 글을 이루고 있는 여러 단락들의 중심 내용을 파악했으면, 이 각각의 단락이 글 전체를 구성하는 데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어 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락간의 관계에 따라 여러 단락들을 몇 개의 단락으로 묶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비로소 글 전체의 짜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2장에서 다루었던 단락의 기능(종류)과 접속 관계를 이용하여 단락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3) (17)과 같이 주제문을 창출해 내야 하는 경우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런 경우를 깊이 다루지 않는다.

- (18) a. “당신의 몸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요?”하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머리 꼭대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하루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써 버리는 우리들이니, 누워 있는 사람에게 그 상태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 본다면, 아마 대답은 코나 배꼽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判斷)의 결과(結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예(例)이다.
- b. 이처럼, 우리들이 당연(當然)하다고 알고 있던 사실이나 진리라고 믿었던 것까지도, 기준이 바뀌지면, 사실이 아니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틀린 답이 맞고, 맞은 답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다른 기준에서는 어떠한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c. 누구나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行動)해야 하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可能性)이 아주 적다.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행동하도록 규제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 d. 세종(世宗) 때, 황희 정승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며 찾아가 판가름해 달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 그리고 “너도 옳다.”라고 했다는 고사(故事)는, 융통성이 없이 한 가지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 e. ‘나’만이 옳다는 생각, ‘나’만이 바르게 산다는 생각, ‘나’의 판단만이 제일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남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는 아량 있는 친구, 너그러운 이웃이 있는 여유 있는 사회를 그려 본다.

(18)의 글에서 단락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우선 단락의 중심 내용 파악 방법에 따라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18.a)의 중심 내용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진다’이다. (18.b)는 ‘판단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진다’이며, (18.c)는 ‘획일적인 사회는 희망이 없다’이다. (18.d)는 ‘황희 정승의 고사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본보기이다’이며, (18.e)는 ‘다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여유 있는 사회를 만들자’이다.

다음으로 파악된 단락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단락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18.a)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그는 도입 단락이다. (18.b)는 필자의 구체적인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제 단락이다. (18.c)는 확실적인 사회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전제 단락 (18.b)를 부연해 주는 단락이다. (18.d)는 (18.b)의 예증 단락으로 볼 수 있다. (18.e)는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주지 단락이다.

(2) 글의 구조화

한 편의 글을 구성하고 있는 단락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했으면 이를 하나의 구조도(構造圖)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구조도를 만들어 보는 것은 글 전체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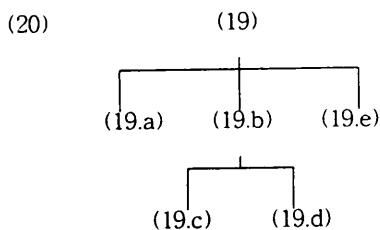
- (19)a. 모든 생물은 가장 발전된 체계를 향해 발전하며, 이를 흔히 진화라고 부른다. 그런데 모든 종이 좀더 나은 상태로, 좀더 고등한 형태로 진화한다면 생물이 모두 고등 동물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오리너구리 같이 조류와 포유류의 분화되지 않은 중간 형태가 아직 존재하는 것이고, 말미잘이나 지렁이 같은 하등 동물이 존재하는 것일까?
- b. 바로 이런 사실이 모든 생물은 완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필연적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던 라마르크를 난감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적자 생존'에서 '진화'를 얘기하는 다윈에게는 이런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c. 예를 들어 마테이라 군도에는 날개가 매우 퇴화되어 거의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 군도 부근은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거센 곳 중의 하나다. 날개가 길고 튼튼한 딱정벌레는 쉽게 공중으로 날아오르지만, 이처럼 날아오른 딱정벌레들은 그 강한 바람에 날려 바닷속으로 떨어져 죽어 버린다. 그러나 아직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나 날개가 약해 잘 날지 않는 딱정벌레는 섬에서 살아 남게 된다. 이처럼 날개가 짧고 날지 못하는 종자는 여러 대를 걸쳐 살아 남는 데 반해 날개가 짧아서 날지 못하는 종자로 '진화'된 것이다. 날개가 '퇴화'된 종자로 '진화'된 것이다.
- d.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은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고등한 기관을 갖는다는 것이 지렁이나 뱀장어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등 동물은 살아 남는 것이며, 진화하기를 멈추거나 거꾸로 퇴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e. 그러나 이처럼 적자 생존하면서 획득된 성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 다윈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되었다.

(19)의 글을 분석해 보자. 우선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19.a) 모든 종이 좀더 나은 상태로 진화한다고 하는 데 예외가 있다. (19.b) 다윈은 '적자 생존'으로 이런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19.c) 마데리아 군도의 딱정벌레는 날개가 '퇴화'된 종자로 '진화'된 것이다. (19.d)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은 하등 동물이 살아 남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19.e) 다윈의 진화론에도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각 단락의 관계를 파악한다. (19.a)는 진화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도입 단락이다. (19.b)는 다윈 진화론의 장점을 서술하고 있는 전제 단락이다. (19.c)는 그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 주고 있는 예증 단락이다. (19.d)는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연 단락이다. (19.e)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 진화론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결론 단락이다.

앞에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19)를 구조화시켜 보자. 우선 보조 단락인 (19.a), (19.b), (19.c), (19.d)와 주요 단락인 (19.e)로 각기 묶을 수 있다. 보조 단락에서 다시, 이야기를 끌어내는 (19.a)와 내용이 전개되는 (19.b), (19.c), (19.d)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단락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화시켜 보면 (20)과 같다.



3) 줄거리 · 요지와 주제 파악하기

단락의 중심 내용과 글의 짜임을 파악하는 가운데 몇 개의 단계로 묶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묶어진 단계의 줄거리⁴⁴⁾와 중심 내용 즉, 요지를 정리하는 것과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1) 줄거리·요지 파악하기

줄거리 또는 요지라 하는 것은, 글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여 필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줄거리는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요지는 줄거리의 핵심 내용만을 간략히 줄이면서 된다. 이때도 역시 ‘삭제 규칙’이 이용된다. 줄거리와 요지를 파악하면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들었던 예문을 다시 보자.

- (16) a. 과학 문명의 발달은 자연 자원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급속한 자연 자원의 이용은 자연 파괴를 가속화시켰으며, 그 결과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 모든 문명의 기기(利器)와 시설로부터 나오는 각종 폐기물은 지구상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원(汚染源)이 되고 있다.
- b. 인구의 급증과 그로 인한 생활 필수품 등의 수요 급증은 산업 시설의 확충을 가져왔다. 그런데 산업 시설의 확충은 결과적으로 수질 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유, 폐수, 살충제, 농약, 납 성분 등과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배설물은 수중 생물을 거쳐 결국은 ‘인간의 체내에 축적됨으로써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 c. 산업 단지의 대기 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대기 오염원이 섞여 있다. 이러한 대기 오염원은 동물체에 주로 호흡기 질환, 안(眼) 질환, 피부 질환 및 암을 유발시키고, 식물체에는 개화기와 결실기에 피해를 준다. 그 뿐만 아니라, 철, 시멘트 시설물을 부식시키고, 악취를 내기도 한다.

우선 각 단락의 중심 내용(소주제문)을 파악한다. (16.a) 과학 문명의 발달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16.b) 인구의 급증과 산업 시설의 확충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결국 각종 폐기물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16.c) 산업 단지의 대기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동식물에 많은 피해를 준다.

각 단락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16.a)는 주요 단락이다. (16.b)와 (16.c)는 각각

44) ‘줄거리’는 흔히 대의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16.a)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고 부연 설명을 하는 예시 단락과 부연 단락으로 보조 단락임을 알 수 있다.

각 단락의 소주제문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파악한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자연 자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문명의 이기와 그 시설로부터 나온 각종 폐기물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인구의 급증과 산업 시설의 확충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산업 단지의 대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고 많은 피해를 준다.’로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단락의 성격을 유의하면서, 줄거리의 핵심을 간추려 전체의 요지를 파악해 보자. (16)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과학 문명의 발달은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켜서 인체와 동·식물에 큰 피해를 끼쳐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2) 주제의 파악

주제란 한 편의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다. 즉, 필자의 의도나 생각의 핵심 내용이 주제이다. 주제는 줄거리와 요지를 파악하여 하나의 주제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8) a. “당신의 몸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요?”하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머리 꼭대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하루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써 버리는 우리들이니, 누워 있는 사람에게 그 상태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 본다면, 아마 대답은 코나 배꼽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判斷)의 결과(結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예(例)이다.

b. 이처럼, 우리들이 당연(當然)하다고 알고 있던 사실이나 진리라고 믿었던 것까지도, 기준이 바뀌지면, 사실이 아니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틀린 답이 맞고, 맞은 답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다른 기준에서는 어떠한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c. 누구나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行動)해야 하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可能性)이 아주 적다.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행동하도록 규제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d. 세종(世宗) 때, 황희 정승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며 찾아가 판가름해 달라는 사람들에게 “네가 옳다.”, 그리고 “너도 옳다.”라고 했다는 고사(故

非)는, 융통성이 없이 한 가지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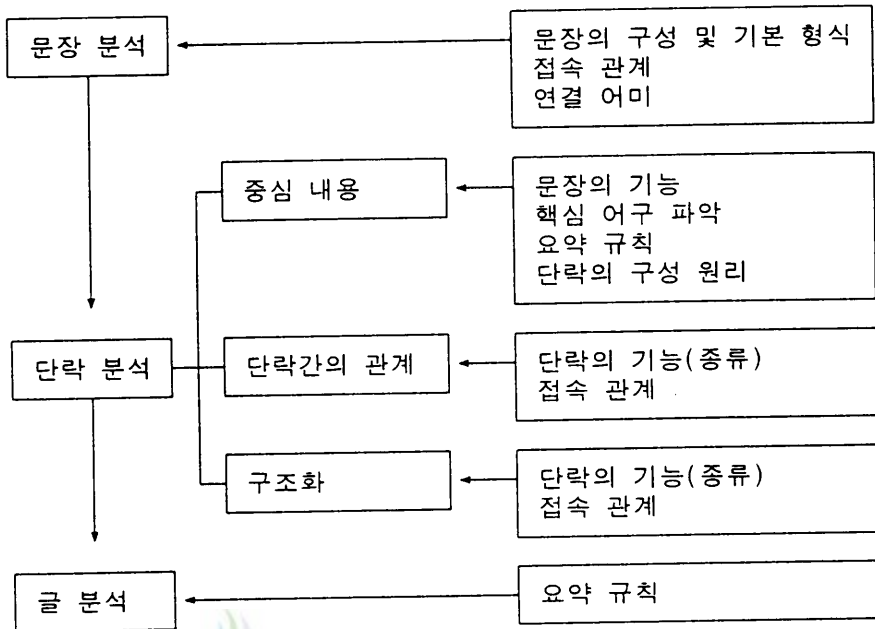
- e. '나'만이 옳다는 생각, '나'만이 바르게 산다는 생각, '나'의 판단만이 제일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남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는 아량 있는 친구, 너그러운 이웃이 있는 여유 있는 사회를 그려 본다.

각 단락의 소주제문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파악한다. (18)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생각의 기준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사실과 진리의 옳고 그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곧,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규제하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예컨대 황희 정승의 고사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난 좋은 본보기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여건을 생각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너그러운 이웃으로서 여유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자.

다음으로 줄거리를 바탕으로 글 전체의 요지를 파악한다. 단락의 성격 파악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심 단락인 (18.a)와 결말 단락인 (18.b)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18)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선과 편견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남의 기준에서 평가해 보는 다양한 사고를 길러 여유 있는 사회를 만들자.

요지를 파악하고 난 후에는, 요지를 바탕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한다. (18)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다른 사람의 처지도 고려한 올바른 판단으로 여유 있고 너그러운 사회를 이룩하자.

이 절에서 우리는 독해의 과정을 살펴 보았다. 독해의 과정을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단락 분석 중심의 독해 과정 >

3. 설명문과 논설문의 텍스트 분석

1) 설명문

설명적인 글을 읽을 때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설명문은 대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⁴⁵⁾ 그러므로 각 단계에 맞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a. 우리 나라의 민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본능(本能)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땅에 우리 조상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민화도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b. 실제로,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巖刻畵)에 민화와 민예품(民藝品)에 나오는

45) 이는 단락(글)의 구성 원리에서 단계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호랑이, 거북, 사슴 같은 동물이 새겨져 있고, 고구려의 옛 무덤 벽화에도 해, 달, 구름, 신선(神仙), 용, 호랑이, 사냥 그림 등이 있다. 또,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조각과 공예품에도 민화를 닮은 그림과 무늬가 있으며,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도자기, 공예품, 건축 등에도 민화(民畵)와 비슷한 그림이나 무늬가 많다.

- c. 이런 사실로 미루어, 우리 나라의 민화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음은 물론, 여러 시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사랑을 계속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민화와 같은 병풍 그림, 인두를 불에 달구어 나무나 종이 에 그린 낙화(烙畵), 납작한 가죽으로 여러 색깔의 글씨와 그림을 겹쳐서 그리는 혁필화(革筆畵), 자수 그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각 단락의 문장을 분석하고 중심 내용을 찾는다. (21.a)의 핵심 어구는 다음과 같다 : 우리 나라, 민화,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사람, 그림, 본능, 조상, 존재. 여기서 중심 내용 즉, 소주제문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민화가 시작되었다. (21.b)의 핵심 어구 : 신석기 시대, 암각화, 민화, 민예품, 동물, 고구려, 무덤, 벽화, 해, 신선, 용, 삼국 시대, 통일 신라, 조각, 공예품,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도자기, 건축 그림, 무늬. 소주제문은 다음과 같다 :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에서 비롯하여 고구려 시대의 벽화 이후 조선 시대까지 각종 미술품에 민화가 나타난다. (21.c)의 핵심 어구는 다음과 같다 : 우리 나라, 민화, 민족, 역사, 사람, 사랑, 오늘날, 병풍, 낙화, 혁필화, 자수 그림. 소주제문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나라의 민화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생, 전승되며 사랑받아 왔다.

다음으로 각 단락의 소주제문을 바탕으로 글의 짜임을 분석한다. (21.a)는 우리 나라 민화의 발생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도입 단락이다. (21.b)는 (21.a)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상술 단락이다. (21.c)는 (21.a)와 (21.b)의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생활 속에 전승된 민화를 말하고 있는 요약 단락이다.

끝으로 줄거리와 주제를 파악한다. 줄거리는 각 단락의 소주제문을 바탕으로, 각 단락의 관계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21)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우리 나라의 민화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러 시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 왔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줄거리를 바탕으로 주제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 나라 민화의 발생.

2) 논설문

논설문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사상 등을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는 글이다. 그러므로 논설문의 독해에서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 주장의 오류는 없는지의 파악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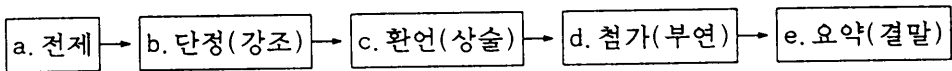
실제 글을 분석하며, 논설문 독해의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22) a. 우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연 자원을 유산으로서 후손에게 이어 주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롭고 훌륭하게 가꾸어진 자연을 넘겨 주어야 한다. b. 이것은 바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使命)이기도 하다. c. 다시 말하면,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을 아끼고 가꿈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지속시키고, 지금까지 잘 지켜 온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자연 그 자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d. 또, 자연은 우리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e. 이러한 자연 보호의 임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릴 것 없이, 우리를 비롯한 인류 모두에게 지워진 공동(共同)의 과제이다.

먼저 각 문장의 어구를 정리하여 간단한 문장으로 만든다 : (22.a)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 자원을 새롭고 훌륭하게 가꾸어 넘겨 주어야 한다. (22.b) 우리 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22.c)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을 아끼고 가꾸어 자연 그 자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2.d) 자연은 일상 생활의 기반이므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22.e) 자연 보호의 임무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

다음으로 문장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22.a)는 다음에 이어질 글쓴이의 주장을 위한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다. (22.b)는 전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단정적으로 드러난 문장이다. (22.c)는 (22.a)와 (22.b)의

내용을 환언하여 상술하는 문장이다. (22.d)는 첨가의 문장으로 자연의 보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22.e)는 결론의 문장으로 주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연 보호의 임무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다. 이를 구조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



(22)의 구조에 유의하면서 줄거리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자연을 후손에게 훌륭하게 가꾸어 넘겨 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다. 자연은 그 자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

주제문(소주제문)은 줄거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경우에는 소주제문이 드러나 있다. 미괄식으로서 (22.e)가 소주제문이 된다. 그리고 줄거리를 참고하여 작성하더라도 주제문은 같다. 즉 ‘자연 보호의 임무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가 (22)의 소주제문이 된다.

(22)의 경우는 작은 글(하나의 단락)이었다. 그러나 논설문은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 편의 긴 글을 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3) a. 사람은 성공(成功)을 좋아하고 실패(失敗)를 싫어한다. 성공한 사람은 박수와 갈채를 받지만, 실패한 사람은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일쑤다. 그래서 저마다 성공을 원하고 실패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밝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처음에는 성공 같지만 실패로 끝나는 일도 많고, 얼른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종당에는 성공으로 마무리지어지는 일도 적지 아니하다.

b. 역사상 정말 위대하게 높임을 받는 인물 가운데에서 살아 생전에 남들이 성공했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c. 오늘날, 모든 한국인으로부터 우리 나라 5천 년 역사에서 뛰어나게 훌륭한 어른 중의 한 분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도 그의 생전에는 그에 어울리는 대접을 받아 본 일이 있었던가? 그의 ‘난중 일기(亂中日記)’

를 보건대, 그의 일생은 고난과 슬픔으로 이어진, 실패처럼 보이는 일생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살피건대, 한국 역사 반만 년(半萬年)에 그를 앞지를 영웅 호걸이 드뭇을 부인(否認)하지 못하리라!

- d. '근세 교육의 아버지' 하면 으레 스위스의 교육자(教育者) 페스탈로치를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가 생전(生前)에 교육자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의 일생은 성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일생이었다. 그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뜻으로 펴낸 교과서(教科書)는 당시 학교에서 써 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읽어 주지도 않아서, 전혀 팔리지가 않았다. 불쌍한 고아들을 모아 고아원을 시작하면 번번이 운영난에 빠져 문(門)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가난하고 불행(不幸)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페스탈로치보다 뛰어난 교육자가 누구인가!
- e.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패가 아니고, 사람의 눈에는 성공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f. 한 번, 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용기만 있다면, 일곱 번 쓰러졌다가도 여덟 번째에 다시 일어날 기백만 지녔다면 실패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 g. 엔리코 카루소라는 가수(歌手)는 어려서 노래를 잘 부른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큰 도시(都市)로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겠다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유명한 선생은 "너 따위의 목소리를 가지고 가수를 지망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선고를 하였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일단 고향(故鄕)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 h. 그 때, 어머니는 오히려 그 아들을 위로하면서 "그 선생님이 네 목소리를 몰라 주다니! 엔리코야, 낙심 말고 다른 스승을 찾아가 공부를 해 보자"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이다. 만일, 카루소에게 그런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우리는 위대한 성악가 한 사람을 잃을 뻔 하지 않았는가? 만일, 그가 어떤 한 스승의 말만 듣고 낙심하여 노래 부를 생각을 아예 포기해 버렸다면, 그는 성악가로서 대성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 i. 실패를 전혀 모르고 성공을 거듭한 사람은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수 밖에 없는 평범(平凡)한 사람들의 약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약자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양지(陽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다. 그런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좁고 웅졸할 수밖에 없다.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고 너그럽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

- j. 청소년이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기만 하면, 그대는 진정 폭이 넓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23)의 글을 독해한다면, 첫째로 각 단락의 핵심 어구를 바탕으로 하여 소주제문을 찾거나 작성한다 : (23.a)의 핵심 어구는 ‘실패, 싫어하다, 처음, 종당’이며, 소주제문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판단하기 어렵다.’이다. (23.b)의 핵심 어구는 ‘위대한 인물, 생전, 성공, 칭찬, 얼마나 되는가’이며 소주제문은 ‘생전에 실패한 삶을 보였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다.’이다. (23.c)의 핵심 어구는 ‘한국인, 역사, 훌륭한 어른, 충무공 이순신, 생전, 고난과 슬픔, 실패’이며 소주제문은 ‘충무공 이순신의 삶은 얼른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성공으로 마무리지어진 인생이다.’이다. (23.d)의 핵심 어구는 ‘교육자 페스탈로치, 생전, 성공, 아니다, 실패, 거둬, 불행’이며 소주제문은 ‘페스탈로치는 생전에는 교육자로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생이었으나 그후 성공한 위인으로 존경받는다.’이다. (23.e)의 핵심 어구는 ‘사람의 눈, 실패, 성공, 명심’이며 소주제문은 ‘성공과 실패의 참 의미에 대한 판단은 변할 수 있다.’이다. (23.f)의 핵심 어구는 ‘실패, 좌절, 타락, 용기, 기백, 두려울 것이 못된다’이며 소주제문은 ‘실패를 극복할 용기와 기백만 지녔다면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이다. (23.g)의 핵심 어구는 ‘엔리코 카루소, 노래, 스승, 목소리, 잘못이다, 울면서 돌아갔다’이며 소주제문은 ‘어려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칭찬 받던 엔리코 카루소가 스승의 말을 듣고 좌절감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갔다.’이다. (23.h)의 핵심 어구는 ‘어머니, 아들 격려, 포기, 성악가, 대성하지 못하다’이며 소주제문은 ‘어머니의 격려로 용기와 기백을 갖게 된 엔리코 카루소는 성악가로 대성하게 된다.’이다. (23.i)의 핵심 어구는 ‘실패, 성공, 약점, 이해, 약자의 사정, 양지, 그늘, 생각과 마음, 웅졸’이며 소주제문은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고 너그럽게 만든다.’이다. (23.j)의 핵심 어구는 ‘청소년, 실패, 두려워 말라, 성공, 어머니, 정진, 보람, 삶’이며 소주제문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이다.

둘째로, 각 단락의 성격과 관계를 파악한다. (23.a)는 전체 단락으로 독자의 주

의를 집중시키면서 문제 제기를 통한 주제 암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23.b)는 구체적 진술(예시)을 위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3.c)는 예시 단락으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다. (23.d)는 예시 단락으로 페스티벌 로치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다. (23.e)는 구체적 진술이 이루어진 단락 즉, (23.c)와 (23.d)에 대한 부연 단락으로 필자의 의견이 담겨 있다. (23.f)는 또 다른 구체적 진술을 위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락이다. (23.g)는 예시 단락으로 엔리코 카루소의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다. (23.h)는 예시 단락으로 카루소가 성악가로서 대성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3.i)는 요약, 정리하는 단락으로 구체적인 진술 부분들의 이야기를 요약, 강조하고 있다. (23.j)는 결말 단락으로 독자에 대한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각 단락의 소주제문과 성격, 관계를 바탕으로 내용 구조도를 그려 본다. 이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글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구조화 시킬 수 있다면, '위의 글을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시오'와 같은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첫째 부분은 (23.a), 둘째 부분은 (23.b)~(23.h), 셋째 부분은 (23.i)와 (23.j)가 된다.⁴⁶⁾

넷째로 각 단계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그 판단이 어렵다.’이다. 본론은 둘로 나뉜다. 본론 첫째의 중심 내용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삶도 이순신과 페스탈로치의 삶처럼 그후 성공한 위인으로 존경받는 경우가 있다.’이다. 본론 둘째의 중심 내용은 ‘엔리코 카루소처럼 실패를 극복할 용기와 기백만 지녔으면 실패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이다. 결론의 중심 내용은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꾸준하게 정진하기만 하면 폭넓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이다.

다음으로 각 단계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23)의 줄거리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충무공 이순신이나 페스탈로치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삶도 그후 성공한 삶으로 존경받는 경우도 있고, 엔리코 카루소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한 용기를 지닌 삶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꾸준하게 정진하기만 하면 폭넓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줄거리를 바탕으로 주제문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신념으로 정진하면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46) 이삼형(1994), pp.101~111.에서 크리스텐슨(Christensen)의 논의를 이용하여 단락 나누기를 이야기 하고 있다. 단락 구분은 단락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내용 단락’별로 나누기가 있다. 크리스텐슨의 단락 나누기를 ‘내용 단락’ 나누기에 적용한 것이다.

‘……정보들이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나타난다고 할 때, 정보들을 단락으로 묶어 나누는 것은 보통 내용 구조의 최상위 수준에서의 정보들의 조직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크리스텐슨은 내용의 전개가 하위 접점에서 상위 접점으로 옮겨갈 때 단락은 나누어진다고 했다.’

IV. 讀解 指導와 檢證

1. 가설과 연구의 제한점

1) 가설

이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 단락 이론, 문맥 접속과 문장 구성 이론, 요약 이론의 체계적인 습득은 독해에 영향을 끼친다.

단락은 하나의 사고의 단위로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단락 이론의 습득은 각 단락에서 적절한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고, 중심 문장을 찾는 것은 독해에 있어 기본이 된다. 중심 문장을 찾는 데는 문맥 접속과 문장 구성 이론, 요약 이론 등이 이용된다. 그러므로 단락 이론, 문맥 접속과 문장 구성 이론, 요약 이론의 체계적인 습득은 독해에 영향을 끼친다.

가설 2 : 스키마를 위한 읽을 거리의 사전 제공은 독해에 영향을 끼친다.

한 편의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독해하는 데 있어서 스키마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글에 관련된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글은 쉽게 이해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글과 관련된 읽을 거리의 제공은 스키마를 형성하고, 형성된 스키마는 독해에 영향을 끼친다.

가설 3 : 텍스트 분석 방법의 습득과 연습으로 독해력이 향상된다.

이론의 습득과 스키마의 형성만으로 독해를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독해의 관건이 된다. 텍스트 분석 방법을 습득하고 훈련을 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대상으로 하는 글은 모두 설명문과 논설문에 한정했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보면 '쓰기'에서 표현상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읽기와 관련하여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그 밖의 표현상의 문제는 배제하고 주로 텍스트의 정보 내용과 관련된 것들만을 다루었다.

텍스트에 대해서 필자가 먼저 분석을 하였다. 이때 주관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의 주관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국어교사⁴⁷⁾들에게 분석의 검토를 의뢰했다. 의뢰의 결과 몇 부분에서 분석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수정, 보완하여 지도하였다.⁴⁸⁾

2. 지도의 실제

1) 지도 과정



(1) 진단 평가

일시 : 1995년 12월 22일

대상 : 실험군 36명, 비교군 36명, 합계 72명

내용 : 다음의 (24), (25), (26)과 같다.

(24) 질문지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 오늘날 인류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자 가장 공포를 느끼는 문제는 전쟁과 공해이다.

47)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란, 중학교 국어 교사 4명, 고등학교 국어 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1명을 말한다. 집단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독해와 관련된 이론들을 미리 제공하였다. 적절한 시간이 흘렀다고 판단되었을 때(이론 제공 후 1개월) 분석의 검토를 의뢰하였다.

48) 이런 경우의 글들은 대체로 주제가 불분명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잘된 글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통일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단계성이 결여된 글이었다.

- b. 현대의 핵 전쟁은 인류를 한꺼번에 파멸시킬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지구 상에는 온 인류를 몇십 번 죽일 수 있는 양의 핵이 무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머지 않은 날에 '행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c. 그런데 핵만큼 무서운 것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공해이다. 핵이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시킨다면, 공해는 인류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 그래서 공해는 죽음을 향해 달리는 완행 열차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사실 지금은 이미 급행 열차가 되어버렸지만.
- d. 이렇게 무서운 핵과 공해는 둘 다 과학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은 우리에게 약도 주고, 병도 주는 존재이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는데, 그 약 때문에 더 큰 병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약을 먹지 않는지만 못하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약을 먹어서 후유증 없이 병이 완쾌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과학도 이와 같다. 제대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과학은 인간을 위해—특정한 소수의 인간이 아니라 대다수의 인간을 위해—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다. 그것이 특정 소수의 불순한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만, 다수를 위해 옳게 사용될 때는 그야말로 만병의 통치를 보장하는 고마운 존재가 될 것이다.

- 이갑진 외, '호모사피엔스는 자살하려는가'의 일부 -

문제 1. 이 글을 내용의 흐름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시오.

문제 2.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제시하시오.

(25) 질문지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 우리 나라 신문들은 사실상 이전의 군사 정권의 비호로 인해 시장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경쟁을 벌여보지 못한 채, 곧바로 무한 경쟁 국면으로 치달았다는 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질이 아니라 양의 경쟁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경쟁의 방식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b. 정부가 신문사들의 불공정 거래 등 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할 뿐더러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독재 권력이 정권 안보를 위하여 이 규제를 언론 탄압에 사용했기 때문

이다. 제대로 '선출된 권력'이 신문과 같은 '임의 권력'의 탈법을 정해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규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 c. 제대로 된 발행 부수 공사 제도(ABC 제도)*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학교 교과에 매체 비판 내용을 담는 것도 한 방안이다.
- d.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이다. 사주가 나서지 않는다면 일선의 언론인이라도 나서야 한다.

- 한겨레 신문 1995년 4월 9일자 기사의 일부 -

*ABC 제도 : 신문의 발행 부수 및 판매 부수 등을 공정하게 조사 보고할 목적으로 광고주, 광고 대리점, 신문사, 잡지사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확대 보급되어 있음.

문제 3. (a)와 (b, c, d)단락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관심과 흥미 유발 - 논점의 구체화 ② 근거 제시 - 의견 주장
- ③ 논지 제시 - 논지의 일반화 ④ 일반적 진술 - 구체적 진술
- ⑤ 문제 제기 - 문제 해결 방안

(26) 질문지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a. 교육관은 글자 그대로 교육에 대한 견해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견해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체계를 가진 견해일 것이다. 아마도 교육관은 한 사람의 교육에 대한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b.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관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아, 교육을 받으면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좋은 직업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게 되며, 이러한 직업과 수입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상승시켜 준다고 생각한다.
- c. 좋은 직업과 수입을 보장받기 위한 교육관은 다시 학력에 관심을 가지는 학력주의 교육관을 낳는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직업과 수입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회적 실정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교육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대학 중에서도 세칭 일류 대학이 아니면, 그러한 보장이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재수 또는 삼수를 일삼는다. 이러한 생각은 급기야 입시 위주 교육관을 낳는다. 입시 위주 교육관은 교육의 본래적인 것이 어떠한 입학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다.

d. 그러나 점수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고, 점수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신념을 형성시켜 준다. 이를 위한 학교 교육은 지식의 전달만을 일삼는다. 점수에 따라 인간이 등급화되고, 학력에 따라 인간이 등급화된다. 수단적 교육관은 이기적인 경향성이 크다. 교육을 점수, 입시, 출세, 수입 등과 관련해서 보는 교육관은 서로의 경쟁을 전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격 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남궁 달화의 '인격 교육을 위한 교육관의 혁신' 중의 앞부분 -

문제 4. 위의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시오.

문제 5.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제시하시오.

(2) 지도의 일시와 내용

① 사전 지도

일시 : 1995년 12월 29, 30일 각 2시간

내용 : 텍스트 분석의 방법⁴⁹⁾

② 실제 지도

일시 : 1996년 1월 3일 ~ 1월 31일(일요일을 제외한 25일 각 2시간)

구간과 지도 내용

◇ 제 1 구간(20분) : 독해 문제 풀기⁵⁰⁾. 예를 들면 (27)⁵¹⁾과 같다.

(27) a. 일본의 대중 문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거리의 골목마다 가라오케, 노래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일본의 NHK 방송을 청취하는 가정도 수도룩하고, 청소년들 사이에는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일본의 만화와 오락 게임이 성행하고 있다. 공영 방송의 TV 프로그램 또한 일본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례가 숱하다. 각종 퀴즈 프로와 연예 오락 프로

49) 사전 지도 시에는 단락 이론, 문맥의 접속과 문장의 구성 이론, 요약 이론을 적용한 텍스트 분석 방법을 지도했다. 사실상 4시간으로는 자세히 지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지도의 제 2구간과 제 5구간의 텍스트 분석에서 추가 지도하였다.

50) 독해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주제를 찾거나 쓰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단락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 요약 문제, 단계성에 따른 단락 나누기, 구절의 구체적인 내용 쓰기 등으로 나타났다.

51) 이는 실제 지도 중 1월 9일(화)에 적용했던 것이다. 이하 제 2 구간 ~ 제 5 구간의 예문들도 모두 1월 9일에 적용했던 것이다.

가운데 일본 프로를 그대로 본뜬 것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얼마 전 청소년들을 열광시켰던 MBC의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주제가 또한 일본의 본뜨기로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대중 문화의 침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온 퇴폐적·향락적인 왜색 문화를 바로잡는 데 나서기보다 오히려 이를 양성화(陽性化)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다. 국내로 침투해 들어 온 미국의 대중 문화*가 퇴폐적이고 향락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폭력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일본의 대중 문화 또한 그것의 아류(亞流)이다. 더구나 발달된 과학 기술과 첨단 매체 기술을 동반한 일본 문화가 공개적으로 개방되면, 그것은 순식간에 국내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 c. 따라서, 성급한 일본 문화 개방은 금물이다. 먼저, 시장의 공식적인 개방 여부에 관계 없이 밀려 오는 일본의 문화 상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개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입되는 외래 문화를 자신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독자적인 문화 중심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공식화한다면, 외래 문화의 높은 파고 속에 우리의 자주 문화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 d. 정부는 일본 문화 수입 개방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주체적이고 민족적인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황경식의 '성급한 일본 문화 수입 개방에 대한 비판' 중 일부-

- * 대중 매체에 의하여 대량으로 생산되며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소비되는 상업주의 문화.

문제 1. 윗글을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쓰시오.

문제 2. 윗글의 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쓰시오.

◇ 제 2 구간(30분) : 제 1 구간의 문제에 대한 해설과 독해 방법(텍스트 분석 방법) 지도⁵²⁾

52) 이때 몇 학생이 풀었던 문제의 답에 대해,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를 밝히게 했다. 이는 피실험자 스스로가 어떤 방법으로 독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문맥의 접속과 문장의 구성 이론과 요약 규칙을 적용하여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a : 일본의 대중 문화는 우리 나라 공영 방송의 TV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 b : 정부는 은밀하게 침투한 일본 문화를 오히려 양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퇴폐적·폭력적인 일본 문화가 국내 청소년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c : 성급하게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 우리의 자주 문화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d : 일본 문화의 개방에 앞서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고 생산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머리말-본문-맺음말’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머리말(a) : 우리 생활 전반에 침투한 일본 문화. 본문(b, c) : 정부의 일본 문화 양성에 대한 문제점. 맺음말(d) : 민족 문화를 지키고 생산하는 대책의 필요

다음은 주제를 파악할 차례이다. 이 글은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일본 문화의 양성에 앞서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생산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의 글이다. a 단락에서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일본 문화의 실상, b·c 단락에서는 일본 문화의 개방화에 따른 문제점의 지적, d 단락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d 단락에서 찾아야 한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일본 문화의 수입 개방에 앞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창조하는 대책을 마련하자.

◇ 제 3 구간(20분) : 스키마의 확대를 위한 읽을 거리의 제공과 읽기

(28) 배경 지식 1

얼마 전 주일 대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제 일본 음악, 영화 등의 수입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하고 “일본 대중 문화를 음성적으로 들여 오기보다는 양질의 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대중 문화 가운데는 양질의 것도 많으며, 한국인의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세계화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는 몰라도 일본 문화를 이 땅에 들여놓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주일 대사의 말처럼 우리의 주변을 뒤져보면 일본 문화가 엄청나게 침투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

였다. 문제 푸는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그 때마다 고쳐 주었다.

문에 어차피 음성적으로 범람하는 일본 문화를 피할 수 없는 처지라면, 건전한 문화를 선별적으로 들여오는 것이 불법, 저질 일본 문화의 폐해를 줄이고 전통 문화를 보호하는 길인 것이다.

우리 국민 생활과 개인 생활 속에는 이미 모든 면에서 일본 문화가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다. 크게는 국가의 자본주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작게는 여성 잡지를 가득 채운 취미 생활과 가라오케에 이르기까지 흔히들 말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일본 문화 모방은 기성 세대의 일본 회사 경영 방식이나 공장 관리의 모방에 비하여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대중 가요나 영화류를 거부하느냐 허용하느냐가 아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를 갖추어서, 그리고 문화적 자주성을 가지고 받아들일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문화적 접촉은 많을수록 좋다. 반공주의라는 부정적, 폐쇄적 문화관에 젖은 한국 사람들에게, 지난 몇 해 사이에 볼 수 있게 된 옛 공산주의 국가의 영화가 던져 준 예술적, 문화적 감동은 얼마나 신선한가. 일본 영화도 배척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혀 왔기 때문에, 한·일 문화 교류에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다. 만일 한·일 문화 교류를 확대할 경우, 일본은 쉽게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 것이라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방을 지향하는 오늘의 추세로 보아, 무작정 폐쇄적인 정책을 펼 수는 없다. 교통 통신이 극도로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지리적 거리가 단축되고, 이에 따라 국가간의 상호 의존도는 높아진다.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물며 인접한 나라의 영향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인접 국가의 문화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문화는 기류(氣流)와 같아서 흐르는 방향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맹목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보다는 신중론의 입장에서 서서 선별적·단계적으로 받아들여 일본 문화가 미칠 수 있는 역기능적 영향을 극소화하면서 어떤 외부 문화에 대해서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우리 문화'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문화적 주체성은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 * 국가의 자본주의 운영 방식 : 우리 나라의 행정 조직이나 회사 운영 방식은 일본의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가 35년 동안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29) 배경지식 2

'슬램덩크', '드래곤볼', '시티헌터' 등의 일본 만화가 국산 만화를 누르고 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외국 만화보다 더 독창적인 만화를 구성해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국내 만화가들이 오히려 외국 만화를 표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만화들은 악덕 만화 제조업자나 작가들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만화책을 들여와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림을 다소 바꾸어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작자들은 이 만화를 창작인 것처럼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 제출, 심의필 마크를 받아 학교 주변 문방구나 만화 가게, 책 대여점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다.

일본 만화는 우리보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아 그대로 수용하기에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주 독자층인 청소년들이 기술적으로 한 단계 앞서 있는 이들 만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은 국내 만화가 화면 구성이나 스토리 전개에서 일본 만화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만화만 보라는 것은 아집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성인들도 만화를 대단히 좋아하고, 만화에 대해 금기시하는 시선이 적어 만화 시장이 발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만화의 질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만화보는 일을 단순히 오락 이하로 취급하고, 청소년들이 만화를 보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어, 만화가 발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만화 시장 자체가 축소되어 만화가 발달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 일본의 출판사들도 이러한 표절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는 '97년 국내 만화 시장 개방에 대비해 한국 독자들의 눈에 일본 만화를 익숙하게 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 새 만화는 꾸준히 나올 테고, 일본 만화에 익숙한 독자층이 있는 한 현재 저작권*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시뻐거리를 만들 뿐이라는 계산이 있는 것이다.

- * 저작권 :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 자기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데, 최근에는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책이나 영화 등을 합부로 복사나 상영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용 시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저작권은 가장 대표적인 문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 제 4 구간(20분) : 독해 문제 풀기

- (30) a. 우리는 '일본'하면 친근감, 우호감을 느끼기보다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같은 일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행해졌다면 그러려니 하지만, 일본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많고, 사족을 달게 된다. 재미 교포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보다도 우리에게도 아직 재일 교포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에 더 격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많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일본에 의해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짓밟힌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 그 경험은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 문화가 침투하면 큰일이 날 것 처럼 여기게 하고 있다.
- b. 그러나 역설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폐쇄성은 우리에게 왜색 문화의 음성적 침투와 그것의 확산을 부채질한다.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들은 청계천 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각종 일본 청소년들—염색한 머리, 러닝 셔츠 같은 티 셔츠, 모양으로 메고 다니는 거북이 가방, 군화 같은 신발 등—과 흡사한 옷차림과 표정을 연출하고, 동네 만화 가게에서 '슬램덩크'같은 일본 만화를 즐긴다. 또, 청소년들이 열광하며 따라 부르는 대중 가요조차, 일반 청소년들이 일본 문화를 공개적으로 접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본 가요를 표절한 것이 많다고 하며, 신국수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의 조류에 맞추어 군복, 군화 패션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고, 심지어 기성 세대들조차 향수에 젖어 일본식 우동을 먹으며, 그 옛날 강요당해 부르던 일본 노래들을 자발적으로 부르는 모양이다.
- c.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일본 문화는 본국인 일본에서조차 저급스런 문화로 치부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되는, 이 일본 문화는 어쩌면 당국의 그 '일본 문화 개방 불허' 방침이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다.
- d. 문화란, 그것이 자연스러울 때만이 어떤 사회, 어떤 세대에게나 건강한 '자정 능력'을 지니기 마련이다. 현대 사회처럼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서 본래부터 자기 것이고, 또 자기만의 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본의 문화 역시 개방되어서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는 건강한 모델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자정 능력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음성적 왜색 문화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본 문화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교육적 풍조가 함께 조성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e. 지금과 같이, 당국이 걸은 '개방 절대 불허'이면서 안으로는 저질 일본 문화의 침투에 대해 무관심 혹은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음성적 일본 문화의 계속적 확산으로 우리 민족 문화의 자주성이 크게 병들 것이다. '무조건 폐쇄' 보다는 이유 있는 개방을 통한 자정 능력의 신장이야말로 우리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신국수주의(新國粹主義) : 국수주의란, 자기 나라의 전통적 특수성만을 우수한 것으로 믿는 배타적이고 보수주의적인 경향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수그러들었던 국수주의가 최근 경제력을 배경으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를 신국수주의라고 한다.

* 문화 자정 능력 : 자정 능력이란,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능력을 뜻한다. 예를 들면, 흐르는 시냇물에 구정물을 흘려 보내면, 물이 흐르면서 구정물이 차츰 맑아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에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퇴폐적이고 파괴적인 문화가 생겨나거나 외부에서 섞여 들어와도,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화가 지속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문화 자정 능력'이라 한다.

문제 1. 윗글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쓰시오.

문제 2. 윗글을 아래와 같이 개요를 짜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정리해서 쓰시오.

서론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일본의 대중 문화
본론	
결론	우리 나라의 문화적 상황과 과제

◇ 제 5 구간(30분) : 제 4 구간의 문제 해설과 독해 방법 지도⁵³⁾

제 2 구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a : 우리는 일본에 의해 우리 역사가 짓밟힌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에 대해

53) 1구간 문제의 지문과, 3구간의 읽을 거리, 4구간 문제의 지문은 유사한 영역의 텍스트를 이용하였다.

매우 폐쇄적이다. b : 일본 문화에 대한 폐쇄성은 일본 문화의 음성적 침투와 확산을 부채질한다. c : '일본 문화 개방 불허'의 방침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퇴폐적인 일본 문화가 음성적으로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d : 일본의 문화를 개방해서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건강한 모델로 형성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e : 무조건 폐쇄보다는 개방을 통한 문화 자정 능력의 신장이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다음은 내용의 흐름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누고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분(a) -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폐쇄성. 둘째 부분(b, c) - 일본 문화에 대한 정책적 폐쇄로 인한 퇴폐적 일본 문화의 음성적 침투. 셋째 부분(d) - 일본 문화의 개방을 통해 폐쇄성의 역기능 해소. 넷째 부분(e) - 개방을 통한 문화 자정 능력의 신장이 필요.

다음은 주제 파악이다. 이 글은 일본 문화에 대한 폐쇄성이 오히려 퇴폐적·향락적인 일본 문화를 음성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유있는 개방을 통해 우리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우리 문화를 지키는 길임을 주장한 글이다. 주제는 e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 일본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폐쇄보다는 이유 있는 개방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개요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일본의 대중 문화
본론	1. 일본 문화에 대한 폐쇄성이 우리 문화에 미치는 영향
	2. 음성적으로 침투되어 있는 일본 문화의 현황
	3. 문화의 자정 능력과 일본 문화 개방과의 관계
결론	우리 나라의 문화적 상황과 과제

(3) 종합 평가

일시 : 1996년 2월 5일

대상 : 실험군 33명, 비교군 33명, 계 66명⁵⁴⁾

내용 : 다음의 (31), (32), (33)과 같다.

54) 진단 평가와 비교하여 볼 때, 대상자가 감소되었다. 지도 기간에 세 번 이상 결석한 학생들을 실험군에서 제외하니 33명이 되었다. 제외된 실험군의 3명과 일련 번호가 같은 학생을 비교군에서도 제외시켰다.

(31) 질문지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전 지구적인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분별없는 욕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다.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 b. 그렇다면, 이러한 대규모적 자연 환경의 파괴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떠한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만 이 지구의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 c. 전 지구적 자연 파괴에 대해 여러 가지 철학적 입장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생태주의'라는 견해이다. 이 생태주의는 전 지구적, 전 인류적 관점에 서서 '신의 피조물들 간의 민주화'를 부르짖는다.
- d. 그들에 의하면, 인간은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며, 단지 자연에 속해 있는 일부일 뿐이다. 40억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나 점차 진화하여 왔는데, 이에 비해 인류는 불과 100만년 전에 나타났고, 인류가 문명을 이룬 것은 단지 7천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유형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법칙에 순리적으로 따름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조화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e. 이러한 생태주의적 견해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지구의 환경 위기에 직면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똑같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인간 스스로가 하게 된다면,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생명체를 파괴시키는 여러 행위, 그래서 인간 스스로를 결국 자멸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 지구적인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나타나는 지구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기반이 될 것이다.

문제 1. 이 글을 내용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둘째 부분에 해당하는 단락의 기호를 쓰시오.

문제 2.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제시하시오.

(32) 질문지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 국가 사이의 문화 교류는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효과적인 문화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문화적 주체성이란, 자기 문화 전통의 참모습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흡수하고 소화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 b. 우리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폈던 일제 시대와 광복 후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대주의적인 편견이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열등하다는, 다시 말해 우리의 것은 무엇이든 서구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자기 비하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 c.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또 하나의 부정적 편견으로는, 전통 문화란 케케묵은 구시대적인 것이므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 시대가 변했으니 이에 따라 사회와 문화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옛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d. 전통 문화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은, 우리의 전통 문화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합리적이라거나 과학적이라는 의미는 근대 서구 세계의 전유물만은 아니며, 시대에 따라 이들의 의미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경주의 석굴암을 생각해 보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석굴암의 보수 공사조차 제대로 못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또, 과학적인 서양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비과학적이라는 동양 의학이 고치는 경우는 어떠한가? 합리적, 과학적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비합리적,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모두 거부할 것이 아니다.
- e. 전통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자기 비하도 문제지만, 반대로 그것을 지나치게 미화하려는 자기 과대의 착각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기의 문화를 지나치게 미화하려는 태도는 국수주의나 배타주의의 편견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전통 문화가 제일이라는 어리석은 편견은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를 경시하고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나칠 정도의 문화적 배타주의나 자민족 중심주의는 결과적으로 전통 문화를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다른 문화와의 교류가 없는 문화는 마치 권 물과 같아서 부패하고 활력을 잃게 되며, 적응력이 저하되어 결국은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 f. 바람직한 문화는, 전통 문화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바탕으로 외래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 흡수함으로써 우리의 체질에 맞도록 내용이 풍부하고 유용하며 탄력 있는 문화로 가꾸기 위해 노력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 3. 윗글의 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쓰시오.

(33) 질문지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 한국에서는 일제가 호칭한 초등학교의 이름, 곧 국민 학교를 광복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학교라는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 b. 국민 학교의 이름을 바꾸자는 근본 이유는, 그것이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제에 의해서 법령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1941년에 일본 정부가 공포한 '국민 학교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황국의 도에 따라 초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적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충군 애국의 도를 연마하여 대동아 공영권* 실현을 목표로 한 전쟁 수행을 위하여 헌신하는 국민적 성격의 단련을 뜻한다.
- c. 한국의 중앙 박물관 건물은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 정치·행정의 최고 사령부로서 건립된 소위 조선 총독부 청사였다. 이 웅장한 석조 건물 안에 한국의 빛나는 전통 문화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국민 학교'라는 이름을 아직도 쓰고 있음은 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 국립 중앙 박물관의 운영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 d. 일제 식민지 통치의 잔재인 국민 학교라는 이름을 아직도 내걸고 있음은, 우리들이 관대하고 아량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며,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내용의 충실만 기하면 족하다는 실리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도 아니다. 그러한 수치스런 잔재를 극복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미 군정기*와 건국

- 초기에 친일파를 교육계 지도자로 등용하고, 역대 정권이 민족 주체성이 결여된 교육 정책을 추진한 데 그 원인이 있다.
- e. 솔직히 말해서, 역대 정권은 초등 교육의 발전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전시 효과가 큰 대학 교육 개혁과 자본 확대에 유용한 과학 기술 교육 진흥은 정부 시책의 주요 사항이 될 수 있었지만, 전시 효과도 미미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초등 교육은 경시되었다.
- f. 오늘날, 공립 국민 학교는 주로 풀뿌리층 아동들을 수용하여 충성스런 국가 시민으로서, 임금 노동자로서 반공 정신에 투철한 국민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부여하는 수련의 도장으로 되어가고 있다. 특히, 빈민 지역 국민 학교는 빈약한 재정 투입과 교육 행정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교육 환경이 자꾸만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 g. '국민 학교'의 이름을 바꾸어 민족의 주체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한 기초 교육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초등 학교의 이름을 새로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가 공동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 이규환, '언제까지 국민 학교인가'의 일부 -
- * 대동아 공영권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구상은 그 범위가 한국, 만주, 중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쳤다. 그것은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일본의 영토하에 행복을 누리자는 것으로, 일제가 침략 전쟁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 전술로서 당시의 지식인조차 이 환상에 빠져든 경우가 많았다.
 - * 미 군정기 :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남한에 존재했던, 미국군에 의한 지배 시기.

문제 4. 위의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둘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의 기호를 쓰시오.

문제 5.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제시하시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제주도 남제주군 소재 N 중학교 3학년 남학생 16명, 여학생 17명이다. 비교 대상 역시 남학생 16명, 여학생 17명이다. 연구 대상과 비교 대상의 사전 조사는 <표 1>과 같다.

비교군 선정에는 실험군의 지능 지수를 평균 처리하고, 평균 점수에 가까운 학

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그리고 나서 종합 평가 후에 국어 성적을 조사하였다. <표 1>을 살펴 보면, 국어 성적에 있어서 실험군이 평균 '0.43' 점 높다. 반면 지능 지수의 경우는 비교군이 '1.29' 점 높다. 그러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 1>에서 국어 성적은 1995학년말 성적이며, 지능 지수는 1993. 5. 12에 실시한 중앙적성출판사의 '지능진단검사 132' 외 지능검사 결과이다.)

<표 1 : 연구 대상과 비교 대상의 사전 조사>

일련번호	국어 성적		지능 지수	
	실험군	비교군	실험군	비교군
01	78	77	113	124
02	70	88	114	124
03	68	70	95	121
04	81	89	118	114
05	76	74	121	115
06	76	64	115	122
07	84	77	122	128
08	80	78	118	127
09	77	78	129	117
10	80	79	107	117
11	86	81	122	118
12	84	76	115	143
13	91	80	123	128
14	84	89	116	129
15	90	85	126	125
16	89	89	129	125
17	79	77	122	125
18	87	76	117	120
19	77	84	131	120
20	84	91	129	127
21	83	74	121	119
22	76	72	124	121
23	92	89	122	125
24	96	79	127	121
25	82	87	114	120
26	76	89	116	120
27	94	96	119	131
28	79	92	118	132
29	77	82	119	119
30	78	88	113	124
31	80	80	107	128
32	84	84	115	120
33	82	72	114	121
평균	81.82	81.39	118.52	119.81

3. 결과와 가설 검증

1995년 12월 22일에 실시한 진단 평가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제 1>은

두 부분으로 나누기, <문제 2>는 주제 쓰기, <문제 3>은 글의 관계 파악하기, <문제 4>는 세 부분으로 나누기, <문제 5>는 주제 쓰기였다. <문제 5>가 가장 어려웠다. 주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브라운과 데이의 요약 규칙 중에서 '주제문 창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표 2 : 진단 평가 결과>

일련 번호	실험군						비교군					
	문항 및 정오					점수	문항 및 정오					점수
	1	2	3	4	5		1	2	3	4	5	
01	○	x	○	○	x	3	x	x	○	○	x	2
02	○	x	○	x	x	2	○	○	x	x	x	2
03	x	x	○	x	x	1	x	○	x	x	x	1
04	○	x	x	○	x	2	x	○	○	○	x	3
05	x	x	○	○	x	2	x	○	x	x	x	1
06	x	x	○	○	x	2	x	○	x	x	x	1
07	x	x	x	○	x	1	x	x	○	○	x	2
08	○	x	x	x	x	1	x	x	x	○	x	1
09	○	○	○	○	x	4	x	x	○	○	x	2
10	x	○	○	x	○	3	x	x	○	○	x	2
11	○	x	○	x	x	3	○	x	x	x	x	1
12	○	○	x	○	x	4	○	x	x	x	x	1
13	○	x	○	○	x	3	○	x	x	x	x	2
14	x	x	○	○	○	2	○	○	○	○	x	3
15	x	○	○	○	○	4	○	○	○	○	x	3
16	○	○	○	○	○	5	○	x	○	○	○	4
17	x	○	x	○	x	2	○	x	x	○	x	2
18	○	x	○	○	x	3	x	x	○	○	x	2
19	x	x	○	○	x	1	x	○	x	x	x	2
20	x	○	○	○	○	4	○	○	x	○	○	4
21	○	x	○	○	x	2	x	○	○	x	x	2
22	○	x	○	○	x	3	x	○	○	x	x	2
23	○	○	○	○	x	4	○	○	x	○	○	4
24	○	○	x	○	○	4	○	x	○	○	x	2
25	x	x	○	○	x	2	○	○	○	○	x	3
26	x	x	x	○	x	1	x	○	○	x	x	2
27	○	○	x	○	○	4	○	○	○	○	x	4
28	x	○	x	○	x	2	○	x	○	○	○	4
29	x	x	x	x	x	0	x	x	○	○	x	2
30	○	x	x	○	x	2	○	○	x	x	x	2
31	x	○	○	x	x	2	○	x	○	○	x	3
32	○	x	○	x	○	3	x	○	○	x	x	2
33	x	x	○	x	x	1	x	○	○	x	x	2
계	17	12	22	23	8	82	16	17	20	18	4	75
평균	0.52	0.36	0.67	0.70	0.21	2.48	0.48	0.52	0.60	0.55	0.12	2.27

전체적으로 볼 때, 실험군과 비교군의 차이는 총점에서 실험군이 7점을 앞서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제 쓰기 문제에서의 정오답 처리이다.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대한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 표현이 조금 다르

더라도 주요 어휘를 사용하고 주요 어휘들간의 문법적 관계가 맞는 것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모호한 답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였다.⁵⁵⁾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것은 몇 건 되지 않는다. 주제 쓰기 문제에서의 정오답 처리 방식은 종합 평가의 경우에도 적용하였다.

<표 3>은 1996년 2월 5일 실시한 종합 평가의 결과이다. <문제 1>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 <문제 2>는 주제 쓰기, <문제 3>은 주제 쓰기, <문제 4>는 세 부분으로 나누기, <문제 5>는 주제 쓰기였다. 진단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 5>가 가장 어려웠다. 그리고 <문제 2>도 어려웠다. 양자 모두가 주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단 평가와 다른 것은 <문제 3>이다. 진단 평가에서는 글의 관계를 묻는 문제였다. 그러나 종합 평가에서는 주제 쓰기 문제였다. 그리고 지문이 모두 진단 평가보다는 길었다. 지문이 길다는 것은 지문이 짧을 때보다 평가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심적 부담감을 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심적 부담감을 준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데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표 4>는 진단 평가와 종합 평가의 증감 비교이다. 실험군의 증감을 보면 '+45' 점으로서 많은 증가를 보였다. 이는 개인당 '+1.37'이라는 증가를 말한다. 개개의 경우를 보면 '-1'의 감소가 1명, 증감이 없는 경우가 2명이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크기는 '+3', 작게는 '+1'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각 개인의 독해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비교군은 개인당 '-0.30'이라는 감소를 가져왔다. 물론 진단 평가와 종합 평가의 난이도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5명의 '+1' 증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증감이 없거나 감소를 보였다.

여기서 +3의 증가를 보인 실험 대상자 3명의 답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단 평가의 경우이다.

일련 번호 03의 피실험자(◇정답 : 문제 3 ◇오답 : 문제 1, 2, 4, 5)

문제 1의 답안 : a / bcd

문제 2의 답안 : 인류는 전쟁과 공해에 대하여 공포를 느낀다.

문제 3의 답안 : ㉟

문제 4의 답안 : ab / c / d

55) 어떤 답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경우는 필자가 각각 전문가와 일대일로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그런 다음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따라 정오 처리하였다.

문제 5의 답안 : 여러 가지 교육관에 대한 설명

<표 3 : 종합 평가 결과>

일련 번호	실험군						비교군					
	문항 및 정오					점수	문항 및 정오					점수
	1	2	3	4	5		1	2	3	4	5	
01	○	×	○	○	○	4	×	×	×	○	×	1
02	○	○	○	○	×	4	○	×	○	○	×	3
03	○	×	○	○	○	4	×	×	×	○	×	1
04	○	×	×	○	×	2	○	×	○	○	×	3
05	○	○	×	○	○	4	×	×	×	×	×	0
06	○	×	○	○	×	3	×	×	×	×	×	0
07	○	×	×	○	×	2	○	×	×	○	×	2
08	○	×	×	○	×	2	○	×	○	×	×	2
09	○	○	○	○	○	5	○	×	×	○	×	2
10	○	×	○	○	○	4	○	×	×	○	×	2
11	○	○	○	○	○	5	×	×	×	○	×	1
12	○	○	○	○	×	4	○	×	×	○	×	2
13	○	○	○	○	○	5	○	×	×	○	×	2
14	○	○	○	○	×	4	○	○	×	○	×	3
15	○	○	○	○	○	5	×	×	○	○	×	2
16	○	×	○	○	○	4	○	○	○	○	×	4
17	○	○	○	○	○	4	○	×	×	○	×	2
18	○	○	○	○	×	4	○	×	×	×	×	1
19	○	○	○	○	×	4	○	×	×	○	×	2
20	○	○	○	○	○	5	○	○	○	○	○	5
21	○	×	○	○	×	3	×	×	×	○	×	1
22	○	○	○	○	×	4	×	×	×	○	×	1
23	○	○	○	○	○	5	○	×	○	○	○	4
24	○	○	○	○	○	5	×	×	×	×	×	0
25	×	○	○	○	×	3	○	×	○	○	×	3
26	○	×	○	○	×	3	○	×	×	○	×	2
27	○	○	○	○	○	5	○	○	○	○	○	5
28	○	×	○	○	×	3	○	○	○	○	×	4
29	○	×	○	○	×	3	○	×	×	○	×	2
30	○	×	○	○	○	4	○	×	×	×	×	1
31	○	×	○	○	○	4	○	×	×	×	×	1
32	○	○	○	○	×	4	○	×	×	×	×	1
33	×	○	○	○	×	3	×	×	×	×	×	0
계	31	19	29	33	15	127	23	5	10	24	3	65
평균	0.94	0.58	0.88	1.00	0.45	3.85	0.70	0.15	0.30	0.73	0.09	1.97

일련 번호 19의 피실험자(◇정답 : 문제 3 ◇오답 : 문제 1, 2, 4, 5)

문제 1의 답안 : ab / cd

문제 2의 답안 : 무서운 핵과 공해는 과학의 부산물이다.

문제 3의 답안 : ㉕

문제 4의 답안 : $ab / c / d$

문제 5의 답안 : 학력주의 교육관은 입시주의 교육관을 낳았다.

<표 4 : 진단 평가와 종합 평가의 증감 비교>

일련 번호	실험군			비교군		
	진단	종합	증감	진단	종합	증감
01	3	4	+1	2	1	-1
02	2	4	+2	2	3	+1
03	1	4	+3	1	1	0
04	2	2	0	3	3	0
05	2	4	+2	1	0	-1
06	2	3	-1	1	0	-1
07	1	2	+1	2	2	0
08	1	2	+1	1	2	+1
09	4	5	+1	2	2	0
10	3	4	+1	2	2	0
11	3	5	+2	1	1	0
12	4	4	0	1	2	+1
13	3	5	+2	2	2	0
14	2	4	+2	3	3	0
15	4	5	-1	3	2	-1
16	5	4	-1	4	4	0
17	2	4	+2	2	2	0
18	3	4	+1	2	1	-1
19	1	4	+3	2	2	0
20	4	5	+1	4	5	+1
21	2	3	+1	2	1	-1
22	3	4	+1	2	1	-1
23	4	5	+1	4	4	0
24	4	5	+1	2	0	-2
25	2	3	+1	3	3	0
26	1	3	+2	2	2	0
27	4	5	+1	4	5	+1
28	2	3	+1	4	4	0
29	0	3	+3	2	2	0
30	2	4	+2	2	1	0
31	2	4	+2	3	1	-1
32	3	4	+1	2	1	0
33	1	3	+2	2	0	-1
계	82	127	+45	75	65	-10
평균	2.48	3.85	+1.37	2.27	1.97	-0.30

일련 번호 29의 피실험자(◇정답 : 없음 ◇오답 : 문제 1, 2, 3, 4, 5)

문제 1의 답안 : a / bcd

문제 2의 답안 : 전쟁과 공해는 인류의 적이다.

문제 3의 답안 : ㉔

문제 4의 답안 : ab / c / d

문제 5의 답안 : 학력주의 교육관과 입시 위주의 교육관

진단평가의 답안들을 보면, 주제를 쓰는 문제의 경우(문제 2와 문제 5) 지문의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옮기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한 삭제 규칙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으로 쓰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종합평가에서는 상위어로의 대처와 주제문 창출의 경우를 이용하였다. 즉 상위 수준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종합평가 답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03의 피실험자(◇정답 : 문제 1, 3, 4, 5 ◇오답 : 문제 2)

문제 1의 답안 : b c d

문제 2의 답안 : 생태주의에서 본 인간과 자연

문제 3의 답안 : 전통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자.

문제 4의 답안 : b c d e f

문제 5의 답안 :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므로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련 번호 19의 피실험자(◇정답 : 문제 1, 2, 3, 4 ◇오답 : 문제 5)

문제 1의 답안 : bcd

문제 2의 답안 : 지구의 환경 위기에서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

문제 3의 답안 : 전통 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자.

문제 4의 답안 : bcdef

문제 5의 답안 : 국민 학교라는 명칭은 고쳐야 한다.

일련 번호 29의 피실험자(◇정답 : 문제 1, 3, 4 ◇오답 : 문제 2, 5)

문제 1의 답안 : b, c, d

문제 2의 답안 : 생태주의에서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평등을 주장한다.

문제 3의 답안 :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가지고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흡수해야 한다.

문제 4의 답안 : b, c, d, e, f

문제 5의 답안 : '국민 학교'의 명칭을 고쳐 '초등 학교'라고 해야 한다.

이들의 답안을 보면 진단평가의 답안보다는 독해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한 독해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상위어로의 대처와 주제문 창출의 경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을 함을 볼 수 있다. 독해 훈련 과정을 거친 결과로 상위의 규칙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V. 結論

국어 사용 능력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독해와 쓰기 능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독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저 자습서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학생들 대다수는 단락 의식이 희박하다. 이는 쓰기에서나 독해에서나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사고의 단위로서의 단락을 이해하고, 단락을 제대로 분석하여 독해할 때,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해와 관련지어 단락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문장의 구성과 접속 관계, 요약 규칙, 스키마 이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이 논문은 이런 이론들을 독해 교육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효율적인 독해 지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남제주군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 33명이다.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50시간의 독해 연습을 시켰다. 글의 분석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1) 단락 이론, 문맥 접속과 문장의 구성 이론, 요약 규칙의 습득은 독해력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
- (2) 텍스트 분석 방법의 습득과 연습은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 (3)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보다 글을 더 잘 이해한다.
- (4) 다양한 형태의 스키마 형성을 위한 읽을 거리의 제공은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 (5) 요약 규칙의 습득으로 상위 수준의 규칙을 적용하게 되어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위의 결과는 독해 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락 이론과 요약 규칙을 습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를 해야 한다. 이는 독해 지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쓰기 지도에서도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을 시켜야 한다.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이 독해력의 향상이 가능하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스키마 형성을 위해 읽을 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과서의 텍스트만으로는 다양한 스키마를 형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읽을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독해와 관련된 연구는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독해는 아주 많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심리학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과 관련된 문제점과 논의점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비록 객관적 측정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전문가들의 주관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좀더 분명한 독해 규칙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2) 설명문과 논설문만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논설문은 논리적인 짜임을 갖는다는 면에서 비교적 분석이 용이하다. 앞으로는 다른 종류의 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3) 쓰기와 관련된 문제를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주제를 창출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심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를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병행 지도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이다.

(4) 텍스트의 일부분(소수의 단락)만을 이용하였다. 텍스트 전체(한 편의 글)를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參考文獻

- 姜星一(1990), 읽기 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姜在倫(1985), 新論理學, 大旺社.
- 金光雄(1989), 文章構造研究, 전예원.
- 金奉郡(1993), 文章技術論(第3版), 삼영사.
- 金烈圭(1981), 讀解와 作文 :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弘盛社.
- 남기심·고영근(1987),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盧命完(1994), 國語教育論, 한샘出版社.
- 盧命完·朴泳穆·權敬顔(1994), 國語科教育論, 甲乙出版社.
- 文德燦(1995), 語彙 指導를 통한 言語使用能力 伸張 方案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朴壽慈(1990), 글處理能力 向上을 위한 글의 構造 指導에 관한 實驗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朴泳穆(1995), 思考力을 伸張시키는 國語 教育, 태릉어문연구 5·6,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 서정수(1985), 作文의 이론과 방법, 새문사.
- 서정수(1994),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개정판), 사당다리.
- 서 혁(1990), 段落·文章의 重要度 把握과 段落의 主題文 作成能力이 要約에 미치는 效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宋寅秀(1988), Text 構造分析의 學習戰略이 論理的 思考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원진숙(1995), 논술 교육론, 박이정출판사.
- 尹錫敏(1989), 國語의 텍스트언어학적 研究試論,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李大揆(1994), 修辭學 : 독서와 作文의 이론, 한글과컴퓨터.
- 李大揆(1995), 國語教科의 論理와 教育, 教育科學社.
-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박

- 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李成永(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달영(1992), 국어 작문 교육에서의 단락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鄭東華(1992), 讀書興味の 發達段階, 「蘭臺 李應百博士 古稀紀念 論文集」, 同刊
行委員會, 한샘出版社.
- 鄭東華·李賢馥·崔賢燮(1984), 國語科教育論, 鮮一文化社.
- 교육부(1983),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 韓哲愚(1992), 읽기 理論, 「蘭臺 李應百博士 古稀紀念 論文集」, 同刊行委員會,
한샘出版社.
- Fransis P. Robinson(1962), *Effective Reading*. New York: Harper & Row.
- 金濼塚(1995), 讀書方法論, 培英社.
- Kathleen E. Sullivan(1980), *Paragraph Pract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최현섭 譯(1987), 文段訓練, 鮮一文化社.
- Robert de Beaugrande & Wolfgang Dressler(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Longman. 金泰玉·李玄浩 譯(1990), 談話·
텍스트 言語學 入門, 養英閣.
- Wolfgang Iser(1976), *Der Akt des Lesens*. n.p. 李惟仙 譯(1993), 讀書行爲,
신원문화사.
- Cleanth Brooks & Rofert P. Warren(1972), *Modern Rhetoric*(4th E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vich.

<Abstract>

Study on Comprehension Improvement Through the Text Theory

Chang, Ho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Guang-Woong

Among the Korean-using abilities, we can regard comprehension and a writing ability as important things. But mostly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comprehension.

In addition, most of students can little understand what paragraph is. In writing and comprehension they also do. We can understand the whole contents of articles only when we regard the paragraph as a unit of thought, we can read and understand it by analyzing it well.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theory of paragraph in reference to comprehension. And I also studied shortly about sentence structures, connection relations, summary rules and a schema theory. I wrote this thesis on purpose of searching for the ways for comprehension guidance by applying these theories to comprehension training and by inspecting effects of i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6.

The subjects of study are 33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third grade in Namcheju-gun. I had made them practice comprehension and understanding during the winter vacation. They spent 50 hours training it. I asked experts to inspect my articles and they helped m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1) The learning of the theory of paragraph, theory of context conjunction and summary rules affects comprehension improvement.
- (2) To train comprehension constantly develops comprehension abilities.
- (3) Schema formation can help us to understand the whole contents of articles better than non-schema formation.
- (4) Reading articles for schema develops comprehension abilities.

The educational previews of those results are as follows : (1) Teachers have the students master the theory of paragraph and summary rules. (2) Teachers have the students train comprehension constantly in order to comprehend the contents of articles fast and exactly. (3) Teachers must offer many reading articles to students for various schema formations.